19일 Market Index
코스피 5768.01 (+99.96)
코스닥 808.89 (+14.11)
금리(국고채 3년) 3.877 (+0.023)
환율(원-달러) 1331.80 (+0.40)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노화, 운명 아닌 '질병'으로 재정의
건강수명 연장 '역노화 기술' 부상

불로장생의 꿈

〈上〉 늙는것도 병이다

쥐의 노화세포, 선택 제거 가능해져
치매·간섬유화 등 질환 완화 입증
인간의 근본적 노화시계 되돌리는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도입 주목

100세 시대, '항노화(Anti-Aging)'가 아닌 '역노화(Reverse-Aging)'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다. 노화를 생로병사의 운명이 아닌 질병으로 재정의하고, 세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치료제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자신의 생체나이 진단을 통해 건강노화, 정상노화, 노화 고위험군 등 정도에 따라 맞춤형 치료와 예방 등 항노화 토탈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메트로경제는 역노화 치료제 부문과 비만 치료제 연구를 중심으로 2차례에 걸쳐 '불로장생의 꿈'을 조망해 본다. [편집자주]

한국은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4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역노화 기술에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 **역노화 연구 어디까지 왔나**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노화는 유전적, 후성유전적 조절 등에 의해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쥐의 노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면 노인성 질환이 개선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며 충격을 안겼다. 이후 노화세포를 제거하면, 치매, 간섬유화, 심장질환, 근감소증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을 완화할 수 있음이 수많은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2024년에는 장기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노화세포가 생기고, 하나의 장기에도 서로 다른 종류의 노화세포가 생기는 것이 보고되면서 장기별·질환별 맞춤형 노화세포 제거 전략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인간의 몸에서 근본적인 노화 시계를 되돌리는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2006년 야마나카 신야 박사가 유도만능줄기세포(iPS) 기술에 기반하여, 유전자를 일시적으로 발현시키는 '부분 리프로그래밍(Partial Reprogramming)'을 통해 마우스의 역노화가 가능함을 증명했다. 2020년에는 네이처(Nature)지를 통해 야마나카 인자로 노화된 시신경세포의 기능을 되살린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확한 노화의 진단을 위해 태어난 연령이 아닌, '생물학적 나이' 개념이 도입됐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의 유전자(DNA) 서열 자체는 거의 변하지 않지만, DNA 표면에 화학 물질이 붙거나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패턴을 분석해 '후성유전학적 시계'를 찾아낸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혈액·타액 분석을 통해 생체나이와 노화 속도를 정밀 측정하고 맞춤형 처방을 내리는 정밀 항노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가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항노화·역노화 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 사 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 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 시 : 2026년 10월21일(수) 오후2~5시
■ 장 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 메 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반도체 이익 70% 깎여도, 코스피 6550 적정

외국계 IB, 韓 증시 저평가 분석
JP모건 "선행 PER 역사적 최저치
메모리 관련주 제외해도 매우저렴"

19일 코스피가 1.76% 상승한 5768.01에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휘둘리며 장 중 한때 5488.41까지 밀렸다.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발 수익성과 과잉 투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60~70%가 사라져도 코스피 적정 지수는 최소 6550선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증시 하락 이면에는 반도체 쏠림과 외국인 매도 현상이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 증시가 지나치게 저평가 됐다는 것이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작성한 '코스피 급락, 지지선 추정.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 상승'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 12개월 예상 합산 영업이익은 907조원(삼성전자 527조원,SK하이닉스 380조원) 규모다. 두 기업의 영업이익이 362조원(-60%)으로 줄어 든다고 가정할 경우 코스피 예상 영업이익은 730조원으로 감소한다. 강 연구원은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 코스피 지수는 7270포인트, '반도체 투톱'의 영업이익이 70% 줄어들어도 적정 지수는 6550선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과거 사이클에서 두 기업은 고점에서 저점까지 최대 50~90% 감소했다"면서도 "현재 코스피 지수는 7월 이후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상당히 깎이는 걸 이미 반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코스피는 전일보다 99.96포인트(1.76%) 오른 5768.01에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14.11포인트(1.78%) 오른 808.89에 마감했다. /뉴시스

외국계 투자은행(IB)도 한국 증시가 지나치게 저 평가됐다고 분석한다.

JP모건 한국주식전략팀은 최근 코스피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최근 4배 수준까지 낮아져 역사적 최저치라고 분석했다. 〈3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강남중심 집값 안정세… 공급주력 성과

국토부, 서울 매매가 상승률 둔화
중장기적 시장 안정화 지속 예상
부동산원, 정부 안정평가와 달리
이달 서울·경기남부 상승폭 확대

정부가 그간의 규제, 금융 등 정책으로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장이 하향 안정됐다고 자평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와 수요감소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19일 국토교토부에 따르면 강남·서초 매매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도 7월 이후 둔화되고 있다.

9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구가 1.65% 하락했으며,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1.25%, -0.45%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과 공공을 망라해 주택공급에 주력하고, 규제·금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수요 관리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과열을 방지했다"며 "그 결과 주택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일부 시장 하향 안정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매물이 쌓이며 매수 심리도 꺾였다고 판단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월 8900건에서 6월 7700건, 7월 6600건, 8월 460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최근 매매물건은 약 7만 4000건으로 올해 초 5만 7000건 대비 30% 증가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거래 비중은 작년 10월 37.9%에서 올해 8월 6.1%로 낮아졌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7월 이후 하락세다.

공급 선행지표는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시장 안정 평가와 달리 10월 들어서는 서울은 물론 경기 남부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9월 마지막주 0.09%를 저점으로 10월 첫째주 0.12%, 둘째주 0.16%로 2주 연속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의 상승폭이 지난주 0.26%까지 커졌다. 특히 성남 분당구(0.79%)를 비롯해 수원 영통구(0.69%), 화성 동탄(0.66%) 등 경기 남부는 급등세를 나타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메트로 한줄뉴스



▲정부, 브런슨 '韓 영토 남쪽 철책선 이남부터' 발언에 우려 표명
▲조갑제 "한동훈에 화력 집중했지만, 단 한 발도 못 맞힌 자충수" /사진 뉴시스
▲"김승원 다시 기소" 요구에 서부공소청장 "현재로선 사정 변경 없어"
▲김혜경 여사 "아이 키우는 데 온 나라 필요"… 모자의료 현장 방문
▲박지원 "국토 수호 적극 나서야 진정한 보수"… 브런슨 발언 비판
▲경찰, 한동훈 자녀 의혹 재수사 범위 검토…정원오 첫 소환조사

구광모, 내년 경영전략 수립 나선다

〈LG대표〉

AI 중심 미래 성장사업 본격화 전망

LG, 전 계열사 사업보고회 돌입
신사업 발굴·투자 우선순위 검토
글로벌 빅테크 협력 성과 구체화



구광모 LG대표

구광모 ㈜LG 대표가 전 계열사 사업보고회과 올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경영 전략 수립에 나선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사업의 실행 전략과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실제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데 경영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LG는 19일부터 구 대표 주재로 전 계열사 사업보고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해 올해 경영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사업보고회는 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 전자 계열사를 시작으로 LG에너지솔루션·LG화학 등 화학 계열사, LG유플러스·LG CNS 등 통신·서비스 계열사 순으로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LG는 올해 사장단회의에서 분기별 핵심 의제를 선정해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해 왔다. 3월에는 AI 전환(AX) 실행력, 6월에는 연구개발(R&D) 경쟁력, 9월에는 투자 전략 고도화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지난 9월 사장단회의에서는 AI 시대의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AX 등 핵심 분야의 투자 성과와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당시 구 대표는 "AI 미래 승부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사장단이 빠른 속도와 집요한 실행력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업보고회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며 계열사별 미래 성장사업과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AI를 비롯한 핵심 분야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 경쟁력을 점검하는 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성과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LG는 올해 엔비디아와 AI 팩토리·피지컬 AI·모빌리티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도 AI 인프라 전반에 걸쳐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협력의 후속 실행 방안과 계열사별 역할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별 계열사의 사업 역량을 그룹 차원에서 결집하는 '원 LG(One LG)' 전략과의 일환으로, 관련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글로벌 파트너와의 단기적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하고, 미래 AI 핵심 승부처에서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여 앞둔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9일 실시된다. /뉴시스

청년층, 자기관리·여가 늘고 일·가사 줄어

데이터처, 10년전 대비 필수시간 16분↑

청년층의 하루 일과 가운데 필수 시간(수면·개인위생·외모관리)과 여가 시간이 10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가사·돌봄 등 의무 시간은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생활시간조사로 본 혼인 및 자녀 유무별 시간사용 변화'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25~39세 청년의 필수 시간은 11시간25분으로 2014년 대비 16분 늘었다.

수면(8시간10분) 시간이 10분, 개인위생·외모관리(1시간28분) 시간이 14분 늘었다. 여가시간도 하루 4시간13분으로 2014년보다 21분 늘었다. 이에 반해 일, 학습, 가사 등 의무시간은 8시간22분으로, 10년 전보다 37분 감소했다.

성별로 필수시간은 남자가 11시간15분, 여자는 11시간37분으로 여자가 22분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자는 남자보다 수면에 13분(남자 8시간3분, 여자 8시간16분), 개인위생·외모관리(남자 1시간23분, 1시간33분)에 10분 더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시간은 남자와 여자 모두 8시간22분씩 사용했다. 일하는 시간은 남자가 1시간21분(남자 4시간55분, 여자 3시간34분) 더 길었지만, 가사·돌봄 시간은 여자가 1시간45분(남자 1시간3분, 여자 2시간48분) 더 많았다.

여가시간은 남자가 4시간24분, 여자가 4시간2분으로 남자가 22분 더 길었다. 남자는 게임·놀이(남자 57분, 여자 10분) 시간이 훨씬 길었다. 여자는 교제·참여(남자 41분, 여자 56분)와 실시간 방송 시청(남자 36분, 여자 45분)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결혼 여부, 자녀 유무별로 보면 기혼·유자녀 청년이 미혼 청년에 비해 가사·돌봄 시간이 길고 여가 시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시간은 기혼·유자녀 청년이 3시간37분으로 기혼·무자녀(4시간49분)에 비해 1시간12분, 미혼(4시간26분)에 비해 49분 짧았다.

여가 시간은 기혼·유자녀 청년이 3시간13분으로 기혼·무자녀(4시간7분)에 비해 54분, 미혼(4시간42분)에 비해 1시간29분 적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주요국 AI 통제 강화… 기술자립 핵심과제 부상

오늘 AI

中, AI 등 핵심기술 해외이전 제한
美, 첨단 반도체 중심 수출통제 나서
韓, 독자역량·글로벌 공급망 시험대

중국이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과 AI 에이전트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해 국내 AI 산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을 활용한 AI 개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기술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확보와 서비스 개발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국의 조치가 발표된 지 사흘만에 한국 정부에서도 중국산 AI 모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에 이어 중국까지 AI 모델과 핵심 기술을 전략적 통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한국의 독자 AI 역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중국, AI 핵심 기술 23개 통제…신규 모델 확보 변수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AI와 바이오의약, 태양광 분야 기술 40개를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수출 금지 대상은 14개, 제한 대상은 26개다. AI 관련 기술이 23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AI 분야에서는 6개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17개 기술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국 정부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에는 초거대 AI 모델과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됐다. 특히 매개변수가 2조개 이상이거나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대규모 모델 관련 기술은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 기술과 학술 논문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에서 제외된다. API 호출과 웹·앱 서비스 등을 통한 모델 이용도 수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핵심 기술을 해외 기업에 이전하거나 현지 인프라에 직접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관리가 적용될 수 있다. AI 서비스의 해외 이용보다 첨단 기술의 국외 이전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딥시크·큐원 활용 확산… 국내 AI 개발 전략도 시험대

이번 조치가 국내 산업에 던지는 핵심 과제는 중국산 AI 모델의 사용 가능 여부보다 향후 기술 접근의 지속가능성이다.

딥시크와 알리바바의 큐원 등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은 높은 성능과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 비용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기업들은 공개된 모델 가중치를 활용해 자체 AI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산업별 특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모델이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기술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 차세대 모델 확보와 추가 학습, 해외 인프라 배치 등에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성능 모델을 활용한 증류 학습은 원천 모델에 대한 접근 조건이 중요하다. 중국의 신규 모델 공개와 기술 이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경우 특정 모델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개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기존 공개 모델의 국내 사용을 곧바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영향은 최종 규제 범위와 기업별 기술 활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 하정우 "중국 AI 의존 줄여야"…독자 AI 전략 중요성 부각

중국의 발표 이후 한국 정부에서도 AI 기술 자립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풀스택 소버린 AI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중국의 기술 수출통제 움직임을 경계했다.

이어 "전력과 AI 컴퓨팅 인프라, 반도체, 프런티어 AI부터 핵심 산업의 AI 전환,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국가안보 영역까지 독자적인 역량과 글로벌 협력 기반의 투트랙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글로벌 모델과 성능을 경쟁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선하고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첨단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은 AI 모델과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특정 국가의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글로벌 규제 변화가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제약할 수 있다.

중국의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국내 AI 산업으로서는 최종 규제 내용을 주시하면서 해외 모델 활용과 독자 기술 확보 전략을 재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오가노이드 기술, 역노화 '게임체인저' 전망

›› 1면 '노화, 운명 아닌 질병'서 계속

인체 장기를 모사한 오가노이드(Organoid) 기술도 역노화 신약 개발의 핵심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노화로 재생 능력을 잃은 장기에 건강한 오가노이드를 이식해 조직 장벽을 복구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연구는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피부 오가노이드 기술을 고도화해 노화로 인한 탈모 치료, 진피층 재생 등 항노화 파이프라인도 개발 중이다.

◆ 치료제 상용화까지 과제 산적

역노화 치료제 개발이 가시화 되고, 실제 상용화가 이루어지기 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노화를 질병으로 받아들이는데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역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화를 질병으로 공식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다.

특정 계층만 고가의 항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빈부 차이에 따라 건강 격차를 더욱 확대 시킬 수 있다는 윤리적인 우려도 남아있다.

항노화 기술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다. 항노화 기술을 위한 별도 인증체계 마련, 생체나이 진단의 표준화, 장기 데이터 축적을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 등의 제도적 장치도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꼽힌다. 항노화·역노화 기술의 효과와 한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기대나 허위 마케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보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역노화 기술이 단순한 혁신 기술을 넘어 의료비 절감과 생산력 회복에 기여하는 생존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은 "고령친화산업, 스마트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정부 정책 등과 연계하여 국민 건강수명연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단장은 "일본, 미국, EU 등은 이미 항노화와 건강수명 관련 대형 프로젝트를 국가와 민간이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과의 국제 협력뿐 아니라, 자체적인 항노화 기술주권 확보 전략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도입 갈림길… 노사정 합의가 관건

메가특구법 성공의 조건

❷ 노동시간 특례의 딜레마

中 반도체 추격에 근로 유연화 요구
경영계, 고소득 연구직 특례 촉구
근로시간 상한·연장수당 면제 쟁점
노동계, 장시간 노동·건강권 우려
노사정 네 차례 대화로 접점 모색
연내 입법 앞두고 제도 향방 촉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긴 노동 특례 조항의 철회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법)에 첨단 반도체 기업의 '고소득'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반도체 선진국 간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메가특구에서의 '노동 특례'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가운데,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거센 메모리 반도체 추격, 노동시간제 완화 움직임 본격화

지난 13일 중국의 국영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가 차세대 서버용 D램 출시계획을 밝히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며 코스피가 5% 이상 하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 후발주자로 기술력이 3~4년 이상 뒤쳐져 있다고 평가받았던 중국 반도체 기업 호재 발표 한번에 우리 증시가 출렁였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 성장 속도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까지 확보한 것을 고려하면 성장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996(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노동 관행'으로 알한다고 알려진 중국 반도체 기업과, 주52시간제에 묶여 있는 우리 기업 노동 현실이 비교되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영계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선 노동 규제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논의 초기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보고한 메가특구법 내용에 따르면,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면 메가특구 내에서 일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종사자 대부분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메가특구 내 기업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지난 7월 발표한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과반수 기업은 메가 특구 내 가장 바라는 노동규제 특례로 주52시간제 예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 R&D(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한 인구클러스터 포럼에 참석해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칼라가 주로 일하는 지식 기반 사업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블루칼라(생산직)가 밤낮 없이 일하며 일궈냈지만, 앞으로의 성장은 화이트칼라의 혁신과 창의성에 달려 있다"며 "공장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 출퇴근 도장만 찍고 상사 눈치나 보게 만드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로는 어떤 혁신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 '사회적 대화' 시작… 연내 처리 위해 속도 내나

노사정은 지금까지 네 차례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머리를 맞대며 이견을 좁히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이번 사회적 대화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가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법 연내 처리 방침을 못 박은 만큼, 사회적 대화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대화를 두고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메가 특구 노동 특례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메가특구에만 특별법으로 근로시간제 면제를 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엔 "노동조건이라는 것을 어떤 지역에만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메가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정해놓은 근로시간제를 특별법이라는 우회로를 만들어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고소득 연구 전문직에게는 노동 시간의 제한 없이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고소득 연구 전문직이 공장에서 라인에서 일하지는 않지 않나"라며 "그들에게 잔업 특근, 야간 (근무를) 시켜서 중국을 이겨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후진적이다. 오히려 창의적인 일에 더 많은 휴식과 더 많은 동기부여가 돼야 함에도 노동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유가 급등에 수입물가 반등… 금통위 금리 결정 촉각

환율 3.4% 하락에도 수입물가 올라
9월 수입물가 1.7% 상승세로 전환
국제유가 28.1% 급등에 원가 압박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서 환율 하락의 완충 효과와 유가발 물가상승 압력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화 강세에도 유가 급등으로 수입물가가 다시 올랐고, 소비자·근원물가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원재료 수입가격은 뛰었기 때문이다.

한은이 지난 16일 발표한 '9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1.7% 올랐다.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8월 15.9%에서 9월 17.6%로 확대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아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9%로 8월 3.1%보다 낮았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3.4%에서 2.8%로 둔화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여전히 웃돈다.

◆ 환율 하락이 수입비용 완충

지난달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1359.00원으로 8월 1406.30원보다 3.4% 하락했다. 달러로 표시된 수입가격이 같다면 원화로 지급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배럴당 88.75달러에서 113.71달러로 28.1% 뛰었다. 한은은 환율 하락에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광산품과 석탄·석유제품 가격이 올라 수입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수입계약에 쓰인 통화로 가격 변화를 집계한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4.9% 올랐다. 원화 기준 상승률은 이보다 낮은 1.7%였다. 환율 하락이 해외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부담을 일부 덜어준 흐름이다.

원유 등 원재료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운송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입 소비재 가격 하락은 해당 품목의 국내 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전체 수입물가 상승률과 함께 품목별 가격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 비용압력의 확산·지속성 관건

수입물가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다. 기업의 재고와 계약 조건, 비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진다. 원재료 수입가격이 올랐다고 소비자물가가 같은 폭으로 즉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유가 상승이 이어져 기업의 원재료비 부담이 누적되면 국내 가격으로의 전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환율 하락이 지속되면 수입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이어질 수 있다. 금통위의 물가 전망에서는 이러한 비용변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소비자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김주형 기자 gh471@

›› 1면 '반도체 이익… '서 계속

코스피 1만 시대 기대
반도체 편중 해소 과제

3분기 코스피 급락·대만은 상승

삼성전자·SK하이닉스·SK스퀘어·SK(주)·삼성물산 등 메모리 관련주를 제외해도 선행 PER이 8.4배라서 매우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JP모건은 "지배구조와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고려할 때 1배에 가까워진 코스피의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도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며 "향후 6~12개월 관점에서는 AI 생태계와 한국 주식에 대한 펀더멘털상 강세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코스피 1만시대'를 열려면 반도체 편중을 해소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편중은 숫자가 말해 준다. 국민소득의 바탕이 되는 명목 국내총생산은 지난 2분기 26% 급증했다. 그런데 반도체 부문 증가율이 254%, 반도체를 빼면 5%다. 상장사 전체의 영업이익 중 60%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나온다. 그 간극 가운데서 국민 다수와 투자자가 느끼는 위화감이 큰 상황이다. 반도체에 의존해 온 증시는 3분기 맥없이 무너졌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대만 가권지수는 61.66% 올라 주요국 증시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36.87%였다. 승부가 뒤집힌 건 올 3분기 이후다. 반도체 업황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우려 속에 이 기간 코스피가 31.95% 하락한 반면 대만 가권지수는 1.51% 상승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이형일 "수출·투자 호조에 올해 3%대 중반 성장 가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부 기존 전망치 3.0% 웃돌 듯
잠재성장률 반등 가능성도 시사
IMF도 전망치 3.3%로 상향 조정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3%대 중반의 고성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경부가 석 달 전 제시한 2026 경제성장률 예측치인 3.0%를 넘어서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주말 'G20·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차 태국 방콕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은 기간 새로운 외부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올해 성장률은) 3%대 중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대 중반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선 3.4%, 3.5%, 3.6% 정도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올해 연간 GDP 증가율 전망을 3.0%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3분기 수출 및 설비투자 관련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1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1.8%, 2분기 0.6%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이 정도 상태에서 3분기까지 괜찮으면 성장률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경제가 단순히 성장률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도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설비투자가 굉장히 좋고, 내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반도체는 여전히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3.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종전(2.6%·7월 전망) 대비 0.7%포인트(p)나 높여 잡았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제시 횟수를 기존 연말과 6월 말~7월 초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제 상황이 이전보다 빠르게 바뀌는 데 따른 대응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中 반도체 생산 18.4% 늘어… 범용 D램 가격경쟁 격화 예고

지난달 中 반도체 생산량 543억개
CXMT, 글로벌 D램 점유율 10%
올해 누적 매출액 54조… 742%↑
웨이퍼 생산, 月 50만장 확대 전망
당장 범용 D램 가격 변동은 제한적
2028년 이후 가격 하락 압력 가능성


AI에 의해 생성된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생산시설 및 메모리 반도체 경쟁 이미지.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범용 D램 시장의 가격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향후 공급 확대가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543억개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8월(529억개)에 이어 두 달 연속 500억개를 웃돈 가운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생산량도 4428억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3% 늘었다.

다만 중국 전체 반도체 생산량 증가를 D램 공급 확대로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이번 통계에는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생산량이 모두 포함돼 있어 중국 메모리 업체의 D램 생산 증가분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CXMT 점유율 10% 기록…생산 효율 개선으로 추격

중국 전체 반도체 생산량과 별개로 현지 최대 메모리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CXMT의 글로벌 D램 매출 점유율은 10%로, 전년 동기(4%) 대비 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한다.

CXMT의 실적도 크게 개선됐다. 지난 16일 공개한 잠정 실적 전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매출액은 최대 2700억위안(약 5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D램 가격 상승과 생산시설 확충, 공정 개선 등이 실적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CXMT는 설비 가동률과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높이는 한편 5세대 D램 제조공정(G5)을 적용한 저전력 D램(LPDDR5X)을 선보이며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나섰다. 서버용 D램 개발도 추진하면서 스마트폰 중심의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매출 증가에는 D램 가격 상승이 반영된 만큼 실적 개선 폭을 실제 생산량 증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中 메모리 증산 전망…삼성·SK 가격 경쟁 변수

CXMT의 생산능력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범용 D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업체들이 PC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메모리 공급을 늘리고 제조원가까지 낮출 경우 기존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반도체 분석업체 세미애널리시스는 CXMT의 월간 웨이퍼 생산능력이 올해 말 약 35만장에서 2028년 말 약 50만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15일 엑스(X)에 "중국은 2028년 엄청난 양의 메모리 반도체(RAM)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장 범용 D램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증가로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데다 CXMT의 5세대 D램(DDR5) 제조원가도 주요 메모리 3사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세미애널리시스는 향후 2년간 D램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업체들과 국내 업체의 경쟁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데이터 처리 속도와 발열 관리, 고객사 품질 인증 등이 중요한 만큼 범용 D램 증산이 곧바로 HBM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PC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범용 D램은 중국 업체들의 공급 확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CXMT가 공정 개선으로 제조원가를 낮추고 생산량까지 늘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범용 D램 수익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 산업 보고서에서 중국 CXMT의 증산이 2028년 이후 범용 D램 가격에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욱 삼성증권 Tech팀장 등은 "2028년 또는 2029년 이후에는 범용 디램 가격의 하방 압력을 키우는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삼성·SK, 美 규제 속 中 생산시설 유지 '고심'

솔리다임, 다롄공장 장비 반입 협의
美 신규 낸드 생산거점 확보 검토도
삼성전자, 시안공장 공정 고도화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공장 전경.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시설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현지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고도화에 제한을 두는 가운데 양사는 기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신규 생산거점 확보를 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은 중국 다롄 낸드 플래시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추가로 반입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SK하이닉스가 미국 신규 낸드 공장 건설 구상과 다롄 공장의 장비 반입 승인 문제를 연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비 반입 대상은 다롄 공장 내 '모드 B(Mod B)'다. 2023년 건물 공사를 마쳤지만 당시 메모리 업황 부진으로 장비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시설이다. SK하이닉스는 "모드 B 장비 설치는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며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중국 시안 낸드 공장의 공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는 주요 거점으로, 미국의 장비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사업장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시안 공장의 8세대(V8·236단) 낸드 전환을 마친 데 이어 시안 2공장(X2)의 9세대(V9·286단) 낸드 전환도 연내 완료하고 양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중국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2025년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 투자액은 4654억원으로 전년보다 67.5% 증가했다. SK하이닉스의 다롄 공장 투자액도 같은 기간 52% 늘어난 4406억원을 기록했다. 두 낸드 생산거점에 투입된 금액은 총 9060억원이다. 투자액 증가가 생산능력 확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사가 기존 중국 생산시설의 유지와 공정 고도화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미국의 장비 수출통제는 양사의 현지 투자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적용하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VEU는 사전 승인된 사업장에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때 개별 수출 허가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양사는 올해부터 기존의 포괄적인 면제 대신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장비를 반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기존 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술 고도화를 위한 장비 수출은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 다롄 공장에 장비 수량을 제한한 2026년분 허가가 발급됐지만 지난 15일 기준 2027년분 허가는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 역시 시안 공장의 차세대 공정 전환 과정에서 미국의 장비 수출 허가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중국 장비 규제와 현지 반도체 투자 확대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신규 낸드 생산거점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솔리다임은 미국 동부 지역 등을 후보지로 낸드 공장 건설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지난 9월 신규 투자설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생산시설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장비 확보와 공정 전환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이찬진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 맞추기 위해 심사 서둘렀다"

〈금감원장〉

2026 국정감사

"코스피 급락에 일부 영향 있다 생각"
사퇴 요구엔 "인사권자가 정할 사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심사 절차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책임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상장 일정에 맞춰 심사를 서둘렀고, 도입 과정에서 공식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추진에는 중복상장 규제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 "일정 맞추려 심사 빨리"…공식 반대 없었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거래소 예비심사 종료 전 심사에 착수한 경위를 묻자 "4월 중순인가 금융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인지에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소 예비심사 결과 확인 여부에는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도입 전 문제점을 지적했는지 묻자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없다. 송구하다"고 밝혔다. 공식 반대 여부에도 "직접적으로 없다"고 답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높은 투자 위험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과거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라는 발언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한 의미냐는 송 의원의 질문에는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왜 막지 않았는지 묻자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며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세게 냈던 것"이라고 답했다. 코스피 급락에 해당 상품이 영향을 미쳤는지에는 "(해당 상품 출시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사퇴 요구엔 즉답 피해…솔리다임 규제 검토

오후에는 지난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상품 도입 검토를 주문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당시 참석자인 황 부원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관련 보고 여부에 대해 금융위 회의에 안건이 올라왔을 때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사퇴 의사를 묻자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인사권자께서 정하실 사항"이라고 답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에는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조금 더. 해보고 싶어
조금 더. 잘하고 싶어
조금 더. 좋아지고 싶어
조금 더. 도전하고 싶어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었던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

아직도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오늘도 조금 더”

We Do Technology | SK hynix

초심

공소청 첫 국감부터 격돌… 與 검찰개혁·野 공소취소 공세

민주당, 공소청 개혁 의지 집중 질의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따져
검찰청 폐지 배경 등 놓고도 설전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19일 공소청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며 공소청의 변화 의지를 따졌고, 국민의힘은 검사의 수사 기능 폐지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추궁했다.

◆與, 박철우 '거악 척결' 발언 지적… 한동훈 딸 수사 과정도 질의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광역공소청 및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중수청에서는 거악 척결을 못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박 청장은 공소청 출범 후 첫 국감을 맞은 소회를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거악 척결은 물론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명칭마저 공소청이 된 점은 매우 슬프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박 청장은 "검찰청을 이어받은 공소청에서 못 한다는 의미지, 국가에서 그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의 업무보고가 과거 검찰의 수사 성과를 강조하는 데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 여전히 검찰"이라며 "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새로 생겼다. 새로 출발한다는 인식이 부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은 경위도 따졌다.

한 의원의 딸은 타인이 만든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으로 제작한 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 부부와 딸은 2022년 5월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경찰은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균택 의원은 "당시 검사는 사법공조 불송부 사유가 '0.99달러짜리 사건이었다'라고 변명했다"며 "책값이 0.99달러라고 해서 저작권 가격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도덕성이 0.99달러짜리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해당 사건을)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서 볼 때 통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野, 대장동 항소 포기·李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 따져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위를 따져 묻고, 진상조사단의 수사 근거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민전 의원은 "박 청장 하면 저같이 검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이라고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할 때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좀 도우면 검찰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는가"라고 물었다. 박 청장은 "그런 고려는 안 했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은 박 청장에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박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상급 기관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와 관련한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는지,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 폐지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쌓인 민주당의 복수심과 연결 지으면서 여야 간 설전도 벌어졌다.

김 의원은 과거 '친노 폐족' 표현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동기를 비판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해당 표현의 취지와 맥락을 왜곡했다며 "사실만 근거해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하동근, 사장 공모 평가 최하위에도 합격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감
최하위 평가·자기소개서 비공개 도마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공모 서류와 면접 과정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음에도 합격한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공모 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를 논의했냐는 물음에 부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동근 사장을 향해 "김현지 실장과 사전에 교감을 했느냐"고 물었다. 하 사장은 "안 했다"고 짧게 대답했다.

하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던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실장 결혼식의 주례를 본 인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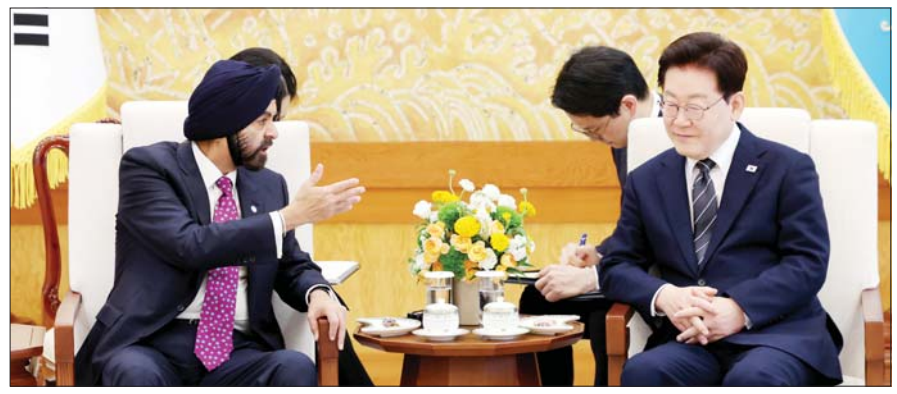
나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공모 과정에서 하 사장이 서류와 면접 평가에서 모두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나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접 위원 중 한 명은 하 사장에게 리더십·비전, 분야 지식 경험, 조직 관리 경영, 청렴 윤리, 기업성, 공공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E'를 부여했다. 다른 한 명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하 사장에게 한 단계 높은 점수인 'D'를 부여했다.

나 의원은 "정권이 교체되면 정권 창출에 기여하셨던 분들을 공공기관장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적절한 곳에 가셔야 한다. 이건 좀 심하다"며 "어떤 기준으로 뽑으라고 돼 있냐면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5항목 전부 다 D등급 아니면 E등급"이라고 지적했다. 하 사장은 "초기 테스트 기준과 최종 선택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 이런 절차는 왜 거치나"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 에너지를 어떻게 잘 공급하냐 하는 곳"이라고 질타했다.

하 사장은 나 의원이 '왜 사장 직에 공모했냐'고 묻는 질문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제가 지역에서 에너지 교육 운동을 10년 가량 해왔고, 환경 운동을 30년 넘게 해왔다"며 "제가 하는 에너지 교육을 현실화하는데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지역난방공사가 하 사장이 사장 공모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대부분을 '사생활'의 이유로 가리고 제출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를 접견하고 있다. /뉴시스

李, 세계은행 총재 만나 국제협력 강화 논의

개도국 AI·에너지 지원 등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WBC) 총재를 만나 "세계은행 업무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가 총재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글로벌 AI·디지털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방가 총재를 접견하고 "세계은행의 지금까지의 국제적 기여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AI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세계은행이 추진하는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강화와 한국의 경험·전문성을 활용한 개도국 에너지 접근성 개선 방안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한국에 오신 그 목표대로 글로벌 AI(인공지능) 협력이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방가 총재는 "우리의 파트너십 활동이기도 하지만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와 기업인들을 만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부문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산업계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추미애 세 차례 사과에도… 국감장 설전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
野 "소방관에게 모욕, '개사과' 아닌가"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에 재차 사과했지만,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발언과 사과 과정의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 현안과 무관한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추 지사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표현을 세 차례 사용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오전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국감은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 일정으로 오후 1시에 개회했다. 추 지사는 국감에 앞서 김 소방위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검은색 정장에 근조 리본을 단 채로 국감장에 출석한 추 지사는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추 지사의 사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사과를 바라니 사과한다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가"라면서 "오만한 사과, 마지못해 하는 사과, 등 떠밀린 사과로 비춰진다. 이것이야말로 속칭 '개 사과'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개 사과'는 2021년 10월 당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랑 5·18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자, 반려견 토리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과를 건네는 사진과 함께 "토리야 인도사과다"라는 문구를 게시해 논란이 일었던 일에서 나온 단어다. 이후 '개 사과'는 정치권에서 주로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비판이 있을 때 쓰이게 됐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상승 전환

긍정평가, 2.1%p 오른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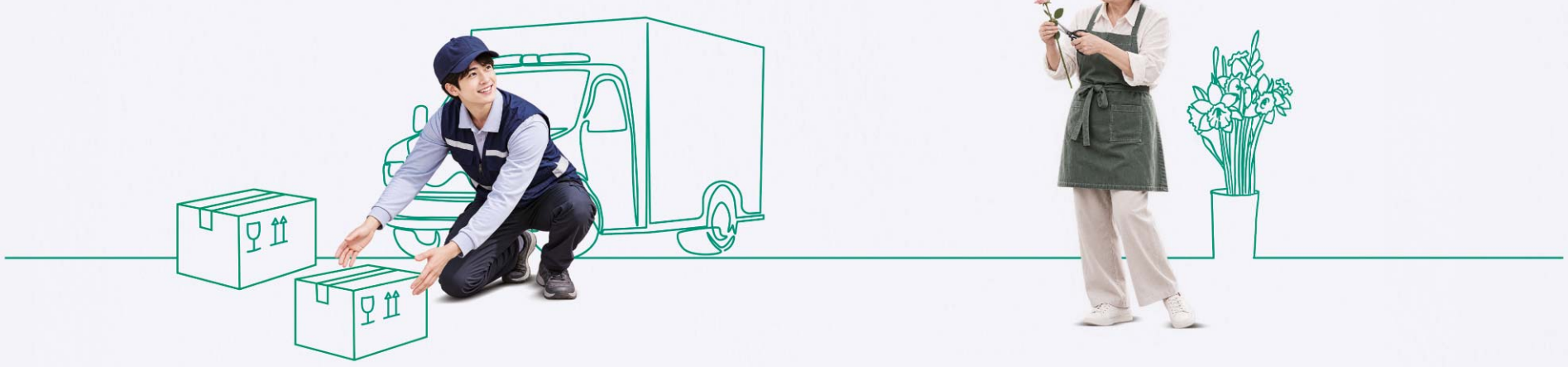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주 만에 반등하며 30%대 후반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p) 상승한 37.3%으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0%p 하락한 60.4%, '잘 모름'은 2.3%였다.

이번 반등으로 지난주 하락분은 대부분 만회한 것으로 보인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2.2%p 포인트 하락한 뒤 이번주 2.1%p 오르면서 10월 1주차(37.4%)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 이후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리얼미터 측 분석이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비용의 효율화, ESG 전략 주효… 주가 25% 상승 '밸류업'

iM금융그룹

상반기 총 영업익 1.1조, 4.4%↑
이자 이익 4.1%, 비이자 5.2% 성장
상반기 400억 자사주 매입·소각
하반기에도 300억 이상 진행 중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iM금융

iM금융그룹의 '질적성장' 전략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 효율성 및 관리에 집중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비롯한 수익성 지표가 개선됐고,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확대로 주주환원도 확대했다. ESG(환경·사회·경영구조) 경영에 중점을 둔 경영 전략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iM금융지주의 종가(16일 기준)는 주당 1만7030원을 기록했다. 주가의 연간 상승률은 약 25.03%로, 지방에 본사를 둔 3개 금융지주(BNK·iM·JB) 가운데 주가 상승폭이 가장 컸다. 4대 지주(신한·KB·하나·우리)를 포함한 7개 은행지주 가운데서는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iM금융은 지난해 3월 시중금융으로 재출범하며 '밸류업'을 주요 경영 목표로 제시했는데, 전략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 **'질적성장' 우선…수익지표 개선**

iM금융이 추진하는 '밸류업' 전략의 핵심은 '질적성장'이다. 비용 효율화 및 수익성 개선을 통해 매출 성장의 토대를 확보하고, 비은행 계열사의 적극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균형잡힌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수익성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iM금융지주의 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iM금융그룹의 그룹 총영업이익은 1조10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약 4.4% 늘었다. 이자이익(8436억원)과 비이자이익(2654억원)이 각각 각각 4.1%, 5.2% 성장해 치우치지 않는 수익 성장을 기록했다.

상반기 말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43%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록했던 7.29%와 비교해 2.14%포인트(p) 개선된 수치다.

자본 효율성 개선도 눈에 띈다. 올 상반기 iM금융그룹의 총자산규모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9.1% 늘었지만, 위험자산(RWA) 증가율은 1.7% 수준으로 관리됐다. 우량자산 중심의 저위험·고효율 내실 성장에 집중하면서, 상반기 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도 12.27%까지 올랐다. 이는 그룹 출범 이후 사상 최고치다.

비은행 계열사의 체질 개선도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비은행 계열사의 이익 기여도는 30%대 중반을 기록했다.

◆ **주주환원 확대…'ESG 경영' 고도화**

iM금융의 경영지표 개선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졌다. iM금융은 지난해 자사주 매입·소각을 포함해 약 38.8%의 총주주환원율을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4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도 300억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해 주주들의 실질 배당 혜택도 극대화했다.

적극적인 'ESG 경영'의 고도화도 밸류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iM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총 8조원 규모의 ESG금융을 공급할 계획이 다. 2025년 말 기준 공급실적은 약 5조8000억원으로, 목표의 72%를 조기 달성했다.

투명한 경영 구조 구축에도 힘쓴다. iM금융지주는 총 10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9명을 독립이사로 구성해 경영진의 견제로부터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소액주주라도 누구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주주추천 제도를 활용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제고했다. 특히 지주 회장 승계 과정에는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회추위가 참여하도록 해 경영승계의 투명성도 높였다.

◆ **'밸류업' 지속…목표치 조기달성**

iM금융은 자기자본이익률(ROE) 10%, 보통주자본비율(CET1) 13%, 총주주환원율 50%를 달성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 4분기에는 매출 성장세를 고려해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검토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까지 총 1500억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목표 달성을 앞당긴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앞서 iM금융그룹 그룹재무총괄(CFO)은 지난 7월 말 실적발표 이후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상반기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12.27%로 개선된 만큼, 연말까지 자본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1차 목표를 조기 달성할 전망이다"라며 "비과세 배당 기회를 적극 활용해 주주가치 제고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밸류업의 지속을 위한 '책임경영'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1월과 3월에만 약 1만주의 자사주를 시장가에 매입해 책임 경영과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황병우 회장은 밸류업의 지속을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생산적·포용적 금융, 내부통제 강화와 같은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외부 요구가 아닌, 동반 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룹의 밸류업을 차질 없이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대구 iM뱅크 제1본점. /iM금융

청년미래적금 2차, 68.8만명 신청… 누적 282만명

금융위, 내달 13일까지 요건 심사
내달 16일~27일 기관별 개좌개설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신청 기간 동안 총 68만8000명의 청년이 가입 신청을 제출했다. 1차 모집 당시 신청자를 합산한 누적 신청자는 중복을 제외하고 약 282만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2차 모집 신청을 접수했으며, 2차 신청 기간 동안 총 68만8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운영했던 1차 가입 당시에는 234만3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1차·2차 모두 가입신청을 제출한 중복 가입자는 약 2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1차 가입신청 당시 서류 미제출 등을 이유로 가입이 거부됐거나, 심사 결과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승인됐으나 취급기관에서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가입 신청 등을 포함한 수치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2차 가입신청부터는 신청자가 직접 자신의 가입 유형을 선택하도록 지정했다. 유형별로는 55만8000명이 일반소득자 가입을 신청해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신청자는 10만8000명, 소상공인 가입 신청자는 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만 25~29세가 23만3000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19~24세 23만2000명(33.7%)가 뒤를 이었다. 30세 이상 가입 신청자는 22만3000명(32.4%)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오는 13일까지 가입요건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자가 사전에 자신의 심사 결과를 비교 및 확인할 수 있도록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심사 결과 안내 직후에는 약 4일간 이의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취급기관별 계좌개설은 오는 11월 16~27일 진행한다. 가입은 각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주말 및 공휴일에는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또 계좌개설 기간 이후에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지며 내년 상반기 진행될 3차 신청에 신규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2차 가입신청 결과 가입이 승인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승인되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했던 금융기관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단,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간 내에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했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납입이 불가해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하나은행

누적 퇴직연금 52조 증가액 '은행권 1위'

하나은행은 올해 3분기 누적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에서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52조155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3조7741억원 증가한 규모다.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이 3조996억원, 확정기여형(DC) 적립금이 1조2931억원 증가하며 전체 적립금 확대를 이끌었다.

하나은행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분기까지 증가액 1위를 유지했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배경으로 대면 상담 채널 확대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꼽았다. 전문 상담 채널인 '연금더드림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송도신도시에 이어 이달 여의도역금융센터에도 신규 라운지를 개설한다.

상품과 서비스도 확대했다. 지난 9월 상장지수펀드(ETF) 전용 모델포트폴리오(MP) 구독 서비스와 개인투자용 국채를 출시하고 비대면 장외채권 거래 시스템을 개설했다. 은행권 최초로 연금 인출기 전용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선보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 관리와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금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취약계층 어르신 낙상·치매 등 '무료보험'

금융위-복지부, 통합지원 업무협약

정부와 보험업권이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시니어를 위한 무료보험을 지원한다. 무료보험은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 등 금융 지원과 헬스케어 등 비금융 지원을 포함한다. 취약계층 시니어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가 참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보호가 절실한 분들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사업은 금융만으로 닿기 어려운 곳에 복지의 현장망으로 다가가고, 복지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위험을 보험으로 채우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돌봄과 건강관리는 정부의 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며 "공적 돌봄과 연계한 보험업권의 상생 노력이 취약 어르신의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험업권은 총 96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재원으로 출연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사업'과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된 두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사업'을 통해 취약 어르신 총 57만명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생활 밀착형 지원을 펼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어르신에게 타박·염좌·골절 등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치료·회복비를 신체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보이스피싱 예방, 모바일 뱅킹 이용법 등 맞춤형 금융교육도 운영한다. 전화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 복약안내 등 비금융 서비스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을 4분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운영은 복지부 위탁업무 수행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맡는다.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취약계층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의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안승진 기자

효성重, 고부가 전력기기 공급 확대 3분기 매출·영업익 대폭 증가 전망

초고압변압기 중심 수익성 개선
전년대비 영업익 41% 증가 추정
건설부문 일회성 비용 부담 변수

효성중공업이 미국향 고부가 전력기기 공급을 늘리며 실적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중동의 운송 차질과 건설 부문의 비용 부담이 단기 변수로 남아 있지만 빅테크 수주와 국내외 생산시설 확충이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미국 초고압변압기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높은 물량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내년에는 멤피스 공장 증설 설비의 연간 가동 효과와 고단가 초고압변압기 출하 증가가 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내 수주처도 기존 전력회사에서 빅테크로 넓어지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달 미국 빅테크 2곳과 총 3865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남·북부에 새로 건립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2200억원 규모의 765킬로볼트(kV) 변압기와 1665억원 규모의 345kV 변압기를 공급한다.

데이터센터 수요에 대응할 전담 조직도 마련했다. 지난달 초 변압기·차단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그리드,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STATCOM) 등의 설계 인력을 모아 데이터센터사업팀을 신설했다. 개별 기기 공급에서 나아가 전력 공급과 전압 안정화에 필요한 설비를 함께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해외 수주 증가에 맞춰 국내 생산시설도 확충했다.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 약 1만8996㎡ 규모의 수출 전용 초고압차단기 신공장을 준공했다. 420kV·550kV·800kV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가동에 따라 창원공장의 420kV 이상 초고압 차단기 생산능력은 기존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기존 공장은 내수용, 신공장은 수출용 제품을 전담하도록 생산체계를 재편했다. 신공장에서는 부품 생산부터 조립·시험·출하까지 전 공정을 수행한다. 핵심 부품인 절연물 생산능력도 약 2배로 늘려 완제품 증산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고 해외 물량의 납기 대응력을 높였다.

미국에서는 변압기와 차단기의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억 달러를 투자한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의 추가 증설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 콴타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초고압차단기 현지 생산기반도 확보했다. 국내 수출 물량과 미국 현지 생산을 함께 늘려 주요 고객의 발주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공급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신규 수주는 올해 8월까지 약 9조3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수주액을 넘어섰다. 연간 수주목표도 기존 8조4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높였다.

수주 확대와 고부가 제품 공급 증가에 힘입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연결 매출 전망치는 1조9032억원, 영업이익은 3103억원으로 각각 17.18%, 41.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중동의 운송 차질과 일부 고객사의 납기 조정으로 매출 반영이 지연되고 건설 부문의 추가 원가 부담도 예상돼 이익 증가 폭은 줄어들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동의 운송 차질과 일부 납기 변경, 건설 부문의 일회성 비용이 단기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전력 인프라 수요에 따른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향 고부가 변압기 공급이 늘어나는 데다 내년에는 멤피스 증설 설비의 연간 가동 효과도 더해져 중공업 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LG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옥외 전광판에 '삶이 묻는 질문, LG가 답하다(Life Asks, LG Answers)' 영상을 공개했다. /LG전자

LG전자, AI 홈·로봇 등 미래비전 공유

美 타임스스퀘어에 브랜드 영상 공개

LG전자가 글로벌 고객들에게 생활가전의 혁신 역사와 인공지능(AI)홈·홈로봇으로 확장하는 미래 비전을 알린다.

LG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옥외 전광판에 브랜드 헤리티지 영상 '삶이 묻는 질문, LG가 답하다(Life Asks, LG Answers)'를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여 고객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로 레이버 홈(Zero Labor Home)' 비전을 글로벌 고객과 공유하기 위해 제작됐다.

LG전자가 1958년 창립 이후 이어 온 가전 혁신의 역사와 AI홈, 홈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미래 전략을 담았다.

LG전자는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이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전광판과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서도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현대차·기아,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트라이폴드 러기지보드' 대상

현대차·기아 연구원들이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할 아이디어를 실물로 선보였다. 트렁크 공간을 넓히는 바닥판부터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안경까지 고객의 이동 편의와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기아는 19일 경기 남양기술연구소에서 '2026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열고 본선 진출 6개 팀의 시제품과 시연을 선보였다. 대상은 M.S.V.2팀의 '트라이폴드 러기지보드'가 차지했다.

올해 17회를 맞은 행사는 '혁신의 기원'을 주제로 열렸다. 총 130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6개 팀이 본선에 올라 독창성과 기술 적합성, 고객 지향성 등을 평가받았다.

대상을 받은 '트라이폴드 러기지보드'는 한 손으로 트렁크 바닥판을 앞으로 밀어 3단으로 접고 뒷좌석 뒤에 고정하자



트라이폴드 러기지보드 시연장면. /현대자동차그룹

위아래로 나뉘었던 적재 공간이 합쳐졌다. 트렁크 하부 공간을 쓰려면 바닥판을 꺼내 따로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인 것이다.

질의응답에서는 기존 차량에 용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지, 사람이 앉아도 되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개발팀은 투싼·스포티지급 차량에 적용하기 적합하다면서도 양산을 위해서는 신뢰성 검증과 재질 최적화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혁 기자 sh95@

SK하이닉스, 소부장 기업 기술자립 돕는다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협약식
금리 우대등 2조 규모 금융 지원

SK하이닉스가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지원과 기술 검증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정부 및 금융권과 협력해 소부장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홍보관에서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협약식과 1호 보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무역보험공사, 4대 시중은행 및 소부장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은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프로그램이다. SK하이닉스와 시중은행이 재원을 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 기업들은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의 첫 지원 대상 협력사에 보증서를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전체 투자금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약 4300억원을 출연하고 클린룸과 전문 인력도 지원할 계획이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K-반도체'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소부장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수출공급망 기금 지원과 트리니티 팹을 통한 원스톱 기술 검증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협력사들과 힘을 모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한층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글로비스, 필라델피아 항만개발 참여

항만 터미널 운영… 물류 경쟁력 강화

현대글로비스가 미국 필라델피아 항만 개발에 참여해 북미 동부 물류 거점 강화에 나선다. 기존 완성차 보관·운송 사업에 항만 터미널 운영을 더해 해상운송부터 내륙운송까지 아우르는 통합 물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항만청 및 현지 개발사와 항만 확장 개발과 완성차 터미널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자동차운반선 전용 선석 확보와 신규 완성차 물류 부지 개발, 기존 부지 계약을 205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신규 부지 개발이 완료되면 현대글로비스의 항만 내 운영 면적은 약 34만평으로 확대되고, 차량 보관 능력은 기존 3만3600대에서 3만760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글로비스는 2010년부터 필라델피아 항만에서 완성차 물류사업을 운영해 왔다. 2019년에는 약 19만평 규모의 완성차 전용 야드인 사우스포트를 개소하며 현지 사업 기반을 넓혔다. 2024년 볼티모어 항만 운영 중단 당시에는 필라델피아를 대체 거점으로 활용해 물류 차질에 대응하기도 했다.

향후 현대글로비스는 터미널 운영을 통해 해상운송·터미널운영·보관·내륙운송을 연결하는 일괄 물류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용차와 건설기계 등 대형 화물,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 물류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대서양 항로 경쟁력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로템, 3분기 실적 뒷걸음… 해외 수주·방산사업 인수 '승부수'

매출 전년 수준, 영업익 11% 감소

3분기 영업이익이 주춤한 현대로템이 신규 해외 수주와 현대위아 방산 사업 인수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에 나선다.

현대로템은 19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4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6207억원으로 0.1% 증가했다.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70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한 반면 매출액은 4조6842억원으로 11.2% 늘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로템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760억원으로 실제 실적은 이를 10.5% 밑돌았다.

수익성에는 환율 하락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18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5.6% 하락했다. 다만 방산 수출 물량 생산이 이어지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다.

중장기 실적 성장의 관건은 신규 해외 수주다. 페루와 이라크, 루마니아 등이 K2 전차의 잠재 수출 시장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연말 예정된 한국과 페루 간 정상회담은 신규 수주를 가늠할 변수로 꼽힌다.

현대로템은 방산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위아 특수사업부를 인수한다. 인수 금액은 3584억원으로 자산과 부채, 인력,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영업양수도 방식이다.

현대위아 특수사업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차 등에 사용되는 포신을 제조하고 있다. 전체 영업가치는 4800억원으로 평가됐으며, 공장 부지 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로템은 이번 인수로 기존 전차·장갑차·다목적무인차량 사업과 포신 생산 역량을 결합해 방산 생산체계를 수직계열화할 계획이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中企 단체 내년 '수장 교체'… 차기 회장 선거전 본격 점화

중기중앙회 등 7개 단체장 임기 만료
김기문 회장 퇴임 앞두고 5명 출사표
중기중앙회 내년 2월 2일 회장 선거
이노비즈·메인비즈 등 경선 가능성
연임·새 인물 경쟁 속 리더십 주목

범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장들 임기가 내년에 대거 끝남에 따라 어떤 인물들이 새로 조직을 이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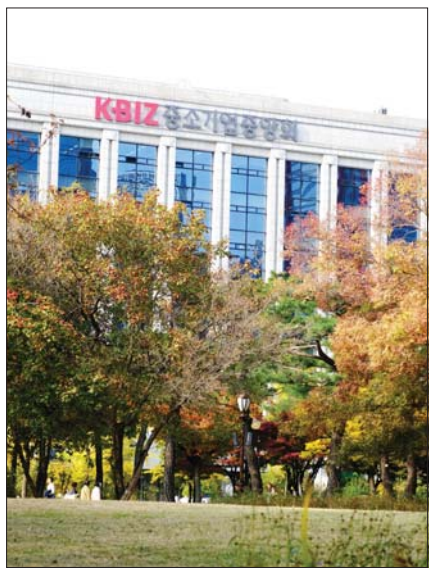
특히 일부 단체는 회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어느때보다 선거전이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1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2월),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8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12월)가 내년에 회장들 임기가 모두 마무리된다.

이들 단체는 임기가 2년(벤처협회), 3년(이노비즈협회 등), 4년(중기중앙회)으로 각각 다르지만 2027년 한꺼번에 물갈이를 하는 셈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곳은 중소기업계 '맏형'인 중기중앙회다.

중기중앙회는 두 차례씩 연임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많은 중소기업 단체장들의 임기가 내년에 모두 끝나면서 조직을 이끌 새 인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 전경. /김승호 기자

총 16년(23~24대, 26~27대) 동안 조직을 이끈 현 김기문 회장이 내년 2월 말까지인 임기를 끝내고 떠나게 됨에 따라 오는 12월11일 선거공고를 하고 제28대 회장 선거전에 본격 돌입한다.

현재 차기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민형 중부흄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출마를 밝힌 상태다.

출마가 예정된 이들 5명 가운데 강동한·박장선·심승일·이재광 부회장은 현 김 회장 체제에서 모두 부회장을 맡으며 중기중앙회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민형 이사장은 25대 박성택 회장(2015년2~2019년2월) 시절 부회장을 역임했다.

중기중앙회 주변에 따르면 현재 이들 후보는 모두 완주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우에 따라 또다른 인물들도 중기중앙회장 선거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기탁금이 2억원이어서 후보자 난립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20일부터 23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연다.

이번 리더스포럼은 차기 회장 후보자들을 놓고 '세평' 자리가 될 전망이다. 다만 앞서 중기중앙회는 회장단 회의를 열고 과열 우려 등의 이유로 차기 회장 출마 예정자들은 이번 제주 리더스포럼엔 참석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1월1~2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월3일부터 2월1일까지 선거운동을 통해 2월2일 투표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성미숙 여성벤처협회장의 임기도 내년 2월말까지다.

이들 단체 모두 1회에 한해 회장 연임이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김명진 회장과 성미숙 회장은 연임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광천 회장은 본인 의지와 달리 주변에서 한 차례 더 연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여성벤처협회 모두 현 회장들의 의중과 별개로 차기 회장에 도전하겠다는 인물도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노비즈협회의 경우 현재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강선영 쉬엔비 대표, 최종복 직스테크놀로지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두 대표가 예정대로 차기 회장에 나올 경우 이노비즈협회는 모처럼 경선을 하게 된다. 이노비즈협회의 경우 단독으로 출마해도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한다.

벤처협회는 회장 선출때마다 반복해서 인물난을 겪었던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에 예정된 총회 전까지 송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인물이 나타날지가 관건이다. 벤처협회는 그동안 주로 단독 추대를 통해 회장을 정했다.

여경협은 현 박창숙 회장의 임기가 내년 12월까지다. 하지만 여경협은 회장 임기 2년차 말에 수석부회장을 먼저 뽑아 기존 회장과 1년간 동행한 후 자리를 이어받는 구조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에 뽑는 수석부회장이 사실상 차기 회장 선거전이 되는 셈이다. 현재 여경협 주변에선 서울권과 경기권에 있는 인사들이 자천타천으로 수석부회장 도전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는 "중소기업 주변을 둘러싼 여러 환경이 더욱 녹록지 않은 시점에서 뽑히는 단체장들인 만큼 리더십과 포용력, 업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을 두루 갖춘 인물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임돼 단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뒷줄 왼쪽 8번째)가 매출 1000억원 달성을 기념해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워박스

아워박스, 창업 9년 만에 매출 1000억 돌파

올해 매출 1300억 목표로 성장 가속
8년간 연평균 매출 74.2% 고속 성장
패션 물류 진출·통합 플랫폼 역량 강화

테크 기반 풀필먼트 전문기업 아워박스가 고속 성장하며 2017년 창업 이후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서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고 있다.

아워박스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올해 누적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연간 매출은 지난해의 877억원보다 48% 늘어난 1300억원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매출 1000억원 돌파는 아워박스가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대규모 물류 운영 역량을 갖춘 테크 풀필먼트 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다. 단순히 물류 처리량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다양한 상품과 유통 채널에 최적화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 기반을 넓혀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창업 이듬해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CAGR)은 무려 74.2%에 달한다.

아워박스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축적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별 특성에 최적화된 풀필먼트 서비스를 강화해 왔다.

특히 올해는 패션 분야로 사업 영역을 본격 확대했다. 지난 6월 가동을 시작한 에이블리 전용 풀필먼트 센터에는 패션 상품의 입고, 보관, 피킹, 출고, 반품 등 물류 전 과정에 특화된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아워박스의 또다른 성장 동력은 자체 개발한 통합 물류 플랫폼 '#MATE'다.

'#MATE'는 주문관리시스템(OMS)과 창고관리시스템(WMS)을 통합한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다양한 판매 채널에서 발생하는 주문과 재고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아워박스는 산업별로 상이한 물류 프로세스를 일관된 시스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다.

아워박스는 기존의 디지털 물류 운영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확대

내년 지원사업 5개 분야 참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도 문화관광형시장 30곳 등을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사업 참여는 ▲문화관광형시장(30곳 내외) ▲시장경영지원(400곳 내외)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300곳 내외) ▲지역상품전시회(10곳 내외) ▲우수시장박람회(1곳)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생활소비형시장 등)은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연계해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문화관광형시장은 기존 2년간 최대 10억원에서 3년간 최대 20억원으로 지원 기간 및 규모가 커진다. 중기부는 사업 종료 후에도 상인회가 콘텐츠 제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는 예산을 기존 132억원에서 정부 예산안 기준 562억원으로 증액해 재난 대응 범위를 확장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벤츠, 차세대 전기차 CLA·GLC 국내 공개

세단·SUV 앞세워 전동화 시장 공략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차세대 전기차 아키텍처를 적용한 신형 CLA와 GLC를 국내에 출시하며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주행거리와 충전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 인포테인먼트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앞세워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9일 성수동에 위치한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경험 공간인 '메르세데스-벤츠 스튜디오 서울'에서 '디 올-뉴 일렉트릭 메르세데스-벤츠 CLA'와 '디 올-뉴 일렉트릭 메르세데스-벤츠 GLC'을 공개했다.

두 모델은 각각 벤츠의 차세대 차량 아키텍처를 처음 적용한 전기차로,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아우르는 전동화 라인업 확대의 핵심 모델이다.

벤츠 코리아의 신형 전동화 세단 CLA는 모듈형 아키텍처 MMA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국내에는 85kWh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탑재한 CLA 250+ 일렉트릭과 58kWh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적용한 CLA 200 일렉트릭을 선보인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국내 인증 기준 각각 474km와 342km다. 800V 급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약 22분, 2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전동화 SUV GLC는 벤츠의 중형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 MB.EA를 처음 적용한 모델이다. 국내에는 85kWh NCM 배터리를 탑재한 GLC 300 4MATIC 일렉트릭을 출시한다.

특히 벤츠 코리아는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대폭 강화했다. 자체 개발 운영체제 MB.OS와 4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차량 기능을 통합 제어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ysw@

신일전자, 겨울 앞두고 생활가전 나눔 실천

평택 행복나눔 바자회에 제품 후원

국내 종합가전기업 신일전자가 겨울철을 앞두고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동절기 생활가전을 후원하며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신일전자는 지난 15일 경기 평택시 동방평택복지타운에서 열린 '2026 행복나눔 바자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생활가전 제품을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방평택복지타운은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가 평택시 소사동에 설립한 종합복지타운으로, 특수학교와 영유아보육시설, 장애아동생활시설,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 등을 갖추고40년 넘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행복나눔 바자회'는 동방평택복지타운이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2004년 처음 개최된 이후2년마다 열리고 있는 평택 지역 내 최대 규모의 바자회다.

신일전자는 이번 바자회에 전기요·히터·가습기 등 동절기 가전5개 품목 약60대, 총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후원했다. 계절가전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가전을 선보이는 기업으로서 제품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복지시설 지원에 힘을 보탰다. /차현정 기자 hyeon@



에스앤마일즈가 선택받는 이유

철강·금속 산업 전문성
산업 특성을 이해한 전문 노하우로
최적의 출장·행사 서비스 제공.

해외 네트워크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업 맞춤 일정 설계
목적과 예산에 맞춘 최적의 일정과
프로그램 설계

24시간 지원 서비스
현지 긴급 지원 및 상담 서비스로
안심 비즈니스 지원

현지 운영 지원
숙련된 현지 운영팀이 행사 전 과정
원활하게 관리

기업 맞춤 인센티브 투어

목적과 예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기업 골프 행사
기업의 목적에 맞는 골프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고객사 사은 행사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
로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해외 워크숍·세미나
항공·호텔·회의·관광까지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기획 → 항공 → 호텔 → 현지 운영 → 귀국
ONE STOP 서비스!

2026 글로벌 산업 전시회

항공 + 호텔 + 여행자보험 패키지로 편리하게!



아시아 대표 금속가공 전시회
01 MWCS 2026 CIIF 동시 개최

MWCS METALWORKING AND CNC MACHINE TOOL SHOW / CIIF

상하이(Shanghai) · 중국
2026. 10.12(월)~10.16(금)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Shanghai)
국가전람중심 (NECC)
1인 129만원~
4박 5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일본 최대 공작기계 전문 전시회
02 JIMTOF 2026

JIMTOF 2026
도쿄(Tokyo) · 일본
2026. 10.26(월)~10.31(토)
Tokyo Big Sight (도쿄 빅 사이트)
전시장 : 전관 (East & West Halls)
1인 155만원~
5박 6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세계 밸브 산업의 중심
03 VALVE WORLD EXPO 2026

VALVE WORLD EXPO DÜSSELDORF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6. 12.01(화)~12.03(목)
Messe Düsseldorf
HALL 1 · HALL 3
1인 215만원~
3박 4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상기 요금은 기준 출발일 및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호텔 예약 상황에 따라 실제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Miles 기업전문 여행사

기업 출장 · 인센티브 · MICE **S&Miles와 상담하세요!**

맞춤 기획서 · 견적 무료 컨설팅!

02-3487-2800
smkang@snmiles.com
www.snmiles.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20

에스앤마일즈 여행사

아이폰이 앞당긴 인터넷 속도전
플랫폼·배달·결제 판 다 바꿨다

통신의 진화

❷ 초고속 인터넷 시대

아이폰 국내 상륙… 와이파이 도입
갤럭시, 카카오톡 등 시장 선점 나서
통신사, 대용량 데이터 전송 위해
넓은 주파수 대역폭 확보 속도
SKT, 1.8GHz 확보로 우위 점해



AI에 의해 생성된 스마트폰 보급으로 급증하는 데이터를 소화하기 위해 속도 경쟁이 치열했던 4세대 이동통신 이미지.

4G 시대를 앞두고 국내 통신 시장의 판도를 바꾼 사건이 있었다. 바로 2009년 말 아이폰 3GS 모델의 국내 상륙이다. 당시 통신사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했는데, 애플은 한국 시장에서 와이파이 환경을 지원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이는 곧바로 통신사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대중들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각종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만든 앱 서비스를 앱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배터리 두 개를 충전하며 번갈아쓰지 않고 일체형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 부터다.

국내 기업들은 재빨리 시장 선점에 나섰다. 2010년 삼성전자는 갤럭시를 선보이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새롭게 등장했다. 특히 단말기 시장에서 위협을 느낀 삼성전자는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OS)를 과감히 버리고,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도입하며 아이폰에 대항했다.

이처럼 산업 구조가 급격히 바뀌자 통신사들의 속도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데이터 소비량은 급증했고 이를 끊김 없이 전송하려면 통신사들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했다.

통신사들은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해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확보해야만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011년 동시에 LTE(롱텀 에볼루션) 서비스로 맞붙었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활용해 여러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OFDMA 기술이 핵심이었다. 초기 LTE의 최대 속도는 75Mbps 수준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제시한 규격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점차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에 걸맞는 기술을 적용하며 속도를 높여갔다.

통신 3사 중에서는 정부의 주파수 경매제가 처음 도입된 당시, SK텔레콤이 약 1조원을 지불하고 황금 주파수로 불리던 1.8GHz 대역을 확보하며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했다. 이후 LG유플러스와 함께 2013년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묶어 전송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활용해 LTE-어드밴스드를 상용화했다. 같은 해 KT는 기존 LTE보다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며 광대역 LTE 경쟁에 나설 수 있었다.

통신사들의 속도 경쟁은 또다시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모바일로 음식 배달을 주문하거나 택시를 호출하고, 지갑 대신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용자들의 생활 전반에 모바일 인터넷이 스며 들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앤트로픽, 공익 펀드에 지분 5% 배정

기업가치 50% 오를 때마다 2% 추가
전체 지분 20% 공익 목적으로 사용
AI 시대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 실험

앤트로픽은 18일(현지시간) 주주 승인을 전제로 회사 지분 5%를 공익 목적의 '앤트로픽 퍼블릭 베네핏 펀드'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기업가치가 기준점보다 50% 오를 때마다 이사회 재량으로 지분 2%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펀드는 앤트로픽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유한책임회사(LLC)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회사는 기부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 같은 구조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펀드가 보유한 자사 지분을 미국 안팎의 로비나 정치 기부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전통적인 비영리단체에 대한 대규모 기부와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 지원을 펀드 활용 사례로 들었다.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는 활동도 포함했다. 회사는 "AI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많은 노동자에게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 문제를 연구하고 대응하는 데 이미 2억달러를 약속했지만, AI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새 펀드가 이런 대응을 추진할 유연성을 갖출 것이라는 취지다.

추가 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업가치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앤트로픽은 향후 몇 달 안에 펀드의 지배구조와 가치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앤트로픽은 공동창업자들이 보유 지분의 80%를 기부하기로 약속했고, 직원 절반가량이 회사의 지분 기부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펀드 발표와 기존 기부 약속을 합쳐 전체 지분 약 20%가 공익 목적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는 비영리재단이 영리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회 선임권도 갖는 구조다. 오픈AI는 지난해 10월 구조 재편안을 발표했다. 재편 완료 시점 기준 비영리 오픈AI 재단은 영리법인 오픈AI 그룹 지분 26%를 보유했고, 그룹 이사 전원을 선임하고 교체할 권한도 갖는다.

전상경 한양대 교수는 "두 회사의 공익 구조는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AI 시대의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공익기금이나 재단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얼마나 충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지, 그 책임을 누가 감독할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AP통신은 앤트로픽이 이르면 내달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김보민 기자 kbm@

네이버클라우드, 기업 보안 자가진단 지원

21개 문항 응답으로 무료 점검

네이버클라우드는 기업이 자사 보안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네이버클라우드 보안 자가진단' 사이트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은 온라인 설문에 답하는 것만으로 개선을 검토할 보안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보안 자가진단은 7개 영역, 2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점검 영역에는 네트워크 보안과 접근제어, 데이터 보호·암호화 등이 포함된다. 회사는 점검 범위에서 '인공지능(AI) 활용 환경 보안 영역'을 추가한 것을 강조했다.

AI 활용 환경 보안 영역에서는 기업이 AI를 이용한 자동화 공격에 대응할 체계를 갖췄는지 점검한다. 임직원이 외부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감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응답을 마치면 주요 규제 사항을 안내받는다.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는 참고할 보완 방향과 관련 서비스를 소개하고, 필요하면 보안 전문가 상담으로 연결한다.

/김보민 기자

"단말기 지원금 허위·과장광고 1.7배 늘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발의 추진
이용자 피해 구제·관리 제도 없어



휴대폰 단말기 개통 시 고가의 지원금을 미끼로 한 허위 광고가 늘었지만,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사진)은 휴대폰 불완전 판매에 대응해 이용자들의 피해 보호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허위·과장 광고를 포함한 이동통신 시장 불공정행위 신고 건수는 1473건으로, 전년 동기(1164건) 대비 약 30% 증가했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는 약 1.7배(494→859건)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곧 시장 과열로 이어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가격 중개 플랫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 광고 대행업체 등 새로운 영업 창구가 확대됐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은 사전 승낙제도를 통해 판매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이용자 피해와 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철회·제재하고 있다"며 "그러나 광고 알선·중개 업자들은 본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파악된 피해 사례를 보면, 이용자들은 일명 '성지 시세표'를 내세운 광고를 보고 매장에 찾아가는데, 가입할 때는 막상 광고에 없던 부가 서비스와 고가 요금제 가입 조건을 요구한다.

여기에 단말기 반납이나 제휴 카드할인 금액을 포함해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 유도가 성행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전문 광고사나 대형 플랫폼에 고객 모집을 의뢰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매장의 개통 행위에만 국한된 이동통신 시장 관리 제도를 광고·알선·모집·중개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각 당사자의 책임 있는 보호조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SKB, 여행·미식·세대 담은 신작 3편 공개

'트립 인 코리아' 등 3편 순차 방송

SK브로드밴드는 가을 시즌을 맞아 신작 프로그램 3편을 순차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선보이는 프로그램은 한국살이 N년차 외국인이 1박 2일 동안 국내 여행 가이드를 하는 '트립 인 코리아'(사진)다. 2023년 첫 공개 이후 올해까지 총 420편을 제작한 장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변화는 여행을 안내하는 주인공이다. 한국인이 국내 명소를 소개하는 익숙한 구도에서 벗어나 한국 생활을 통해 자신만의 여행 취향과 경험을 쌓아온 외국인이 한국인 여행 가이드로 나선다. 출연자는 배우 오지호와 방송인 오정연 등이다.

이후 음식에 담긴 삶을 조명하는 '미식의 조각, 한 끼'를 방영한다. 맛칼럼니스트 박상현 작가가 지역을 찾아가 한 끼 메뉴에 담긴 기술과 삶의 철학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낸다. 또한 시니어 예능 '청춘학교2026'는 개그맨 정승환이 시니어 출연자들과 함께 추리를 주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추억을 회상하는 여정을 펼친다.

/조민선 기자

LG CNS, '에이엑스 싱크' 중심 역량 입증

〈업무 에이전틱 AI 서비스〉

IDC 평가서 '메이저 플레이어' 선정

LG CNS가 글로벌 시장 평가에서 비즈니스 솔루션 제품력을 입증했다. LG CNS는 'IDC 마켓스케이프: 2026년 전 세계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서비스 부문 벤더 평가'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 중 최초다.

해당 평가는 국내외 IT 기업들의 현재 사업 역량과 향후 전략을 종합 평가하는 벤더 분석 모델이다. 제품, 서비스 경쟁력뿐만 아니라 고객 레퍼런스 및 실제 고객 경험 등을 분석한다. 이번에는 총 18개 사가 선정됐다.

이같은 결과는 LG CNS의 업무 에이전틱 AI 서비스 '에이엑스 싱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서비스 역량이 주효했다. IDC에 따르면, LG CNS의 강점은 ▲AI 네이티브 플랫폼 ▲규제 산업 및 보안·망분리 환경 전문성 ▲고객이 검증한 엔드투엔드 사업 수행 역량 등이다.

AI 네이티브 플랫폼 중 하나인 에이엑스싱크를 통해 정보 검색과 업무 지원부터 실제 업무까지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기업 업무 포털·그룹웨어부터 AI 문서 작성까지 다양하다. 또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공공·제조 등 분야에서 에이전틱AI 사업 경험을 축적한 LG CNS의 산업 전문성에도 주목했다.

마지막으로 고객 레퍼런스를 구축해 사업 수행 역량을 검증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에 참여한 고객들은 고객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에 대한 이해, 유연성과 대응력, 협업 방식, 인력의 우수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

LG CNS는 현재까지 다양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미국, 중국, 독일 등에 있는 그룹 계열사 사업장에 적용한 결과, 업무 생산성이 최대 40% 향상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수백억원 규모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조민선 기자

AI 투자 거품 우려에 코스피 흔들… 반등은 아직 '안갯속'

이달 들어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부진
코어위브 등 부채·차입 비용 부담
증권업계, 'W자형' 흐름 예상



코스피가 하루에도 수백 포인트씩 급등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주가가 하루하루 불안한 흐름이라 지금 들어가기 무서워요."

"용기 내서 매수했는데 인공지능(AI)발 신용(부채 리스크) 우려가 현실이 되면 어떡하죠?"

'오천피'(코스피지수 5000)로 밀려난 코스피가 하루에도 수백 포인트씩 급등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AI발 신용 공포가 시장을 끊임없이 괴롭히자 "지금 들어갔다가 물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추세적 상승 여부가 미국 AI 기업의 수익성·과잉 투자 우려 해소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된다는 게 전제다.

◆AI 우려에 흔들리는 코스피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1.76% 오른 5768.01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다. 3.17% 하락 출발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덕분에 상승 마감했다. 하지만 코스피는 이달 들어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부진한 성적표를 내면서 내리막길을 걷는 중이다. 코스피의 이달 수익률은 -15.65%다. 일본 니케이225는 물론 중국 심천종합지수, 인도네시아 IDX 종합지수보다 낮다.

AI 과잉 투자와 수익성 우려가 시장을 짓누른 영향이다.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조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AI 붐이 3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규제정보업체 레그레이어 자료를 인용해 올해 들어 최소 47건의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지연됐거나 철회됐거나 승인이 막혔다고 보도했다. 레그레이어는 이 수치는 최대 규모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한 "보수적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투자은행 번스타인도 미국에서 계획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중 약 35%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FT는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미 전역에서 1000곳 넘는 지역사회가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이나 다른 제한 조치를 도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제임스 매킨토시 칼럼니스트도 이날 'AI 주식시장의 흔들림이 일깨운 교훈,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현재의 AI 투자 붐이 과거 대규모 설비투자 열풍에서 나타났던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매킨토시는 1840년대 영국의 철도 투자 거품과 2000년대 전후 '닷컴 버블' 당시 광섬유망 구축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코어위브발 신용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코어위브, 오라클, 소프트뱅크 등의 자금 조달과 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이것이 단순한 개별 기업의 취약점인지, 데이터센터 건설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번질 신호인지를 짚었다.

51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코어위브의 부채가 720억달러(약 96조1000억원)에 달하자 시장에서는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평가했다. 지난주 코어위브 회사채 금리는 15%를 넘어섰다. 정크 본드(투기등급 채권) 수준이다. 주가는 24% 하락했는데, 16일 하루에만 12% 급락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위험한 AI 관련 회사채의 금리 스프레드는 지난 6개월 동안 50% 이상 급등했다. 데이터센터 위험 연구 기관 아즈라크의 알렉산드라 콜먼 설립자는 "시장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요즘 이코노미스트와 은행,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매주 AI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부채 규모를 점점 더 높게 추산하고 있다. 조사업체 AIR 플랫폼의 데이비드 먼브스 신용 전략 책임자는 "시장은 오늘 투입하고 빌려야 하는 자금과 향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 잠재적인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외국인과 AI에 달렸다"

하나증권 이재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의 고점 대비 하락률이 약 22%로, 과거 미국 하이일드(고수익) 채권의 신용위험이 높아졌을 때 나타난 최대 주간 누적 하락률과 비슷해졌다"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곧바로 상승세로 돌아서기보다 반등 후 다시 저점을 시험하는 'W자형' 흐름을 예상했다. 과거 사례를 적용한 2차 저점 추정치는 5300선,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에 해당하는 지수는 5150선으로 제시했다. 두 수치 모두 산출 기준에 따른 참고 수준이다.

관건은 미국 AI 투자 우려가 잦아드느냐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AI 서비스 수요 자체보다 데이터센터 기업들이 높은 금리 속에서 차입 비용을 감당하고 설비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다"고 설명했다.

'셀 반도체'에 나선 외국인 수급도 관건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단기 과매도 국면에 들어섰지만, AI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 전에는 적극적인 매수보다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NH아문디, 반도체 소부장으로 투자 확대

성장주도 코리아 펀드 성과·전략 제시
설정 1주년… 수익률 84.86% 기록


박진호 주식운용부문장. /NH아문디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이 '성장주도 코리아 펀드' 설정 1주년을 맞아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투자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넓힌다. 최근 국내 증시 급락에도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 방향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고금리와 물가 불안에 따른 변동성에는 금융·에너지 업종을 함께 편입해 대응할 방침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장주도 코리아 펀드의 운용 성과와 향후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설정된 이 펀드는 AI 대전환(AX), 친환경 대전환(GX), 자본시장 대전환(CX)을 주도하는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주식형 펀드다.

지난 14일 기준 설정 1년 수익률은 84.86%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67.63%를 17.23%포인트 웃돌았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55.02%로 코스피보다 12.44%포인트 높았으며 순자산은 약 1300억원이다. 반도체와 IT하드웨어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성과를 이끌었다. 펀드를 운용하는 최치현 주식운용2본부 차장은 "코스피 대비 초과 성과의 약 80%를 반도체와 IT하드웨어 업종에서 기록했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AI 관련 업종을 핵심으로 가져가되 종목 구성에는 변화를 줄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가 최근 2개월 연속 정체된 만큼 두 회사의 비중 일부를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옮긴다. 대형주의 이익 전망이 빠르게 상향되던 지난 1년과 달리 앞으로는 업종 내 실적 개선 폭이 큰 기업을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내년 반도체 전공정 장비 투자 확대가 소부장 기업의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IT하드웨어에서는 반도체 성능 향상에 따라 대형화·고다층화가 진행되는 패키징 기판 업종의 높은 비중을 유지한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서는 은행·보험을, 물가 불안에는 정유·가스 업종을 편입해 변동성을 관리한다.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성장 등의 수혜가 기대되는 이차전지도 내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꼽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 글로벌 MLCC·기판 ETF 출시

AI 서버 고도화에 부품 수요 확대

"MLCC와 기판 투자 포인트는 AI 병목 현상이 MLCC와 기판으로 확산되고 있고 가격과 판매가 동시에 상승하는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으며 한국, 대만기업 등의 수혜가 가장 클 수 있습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19일 열린 'TIGER 글로벌MLCC&기판 ETF' 상장 기념 웹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AI) 서버의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높아지면서 메모리에 이어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와 반도체 기판에서도 공급 제약과 수요 확대가 맞물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20일 글로벌 MLCC·기판 주요 기업 13종목에 투자하는 TIGER 글로벌MLCC&기판 ETF를 상장한다. AI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핵심 부품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MLCC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만큼 공급해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부품이다. 고성능 GPU와 CPU, 메모리를 다수 탑재하는 AI 서버는 전력 사용량이 많고 연산 부하에 따른 전류 변화도 커 MLCC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시한 자료에서 일반 서버의 MLCC 탑재량은 약 2200개인 반면 AI 서버는 약 2만8000개에 달한다. 차세대 AI 시스템의 전력 밀도가 높아지면서 고용량 MLCC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판 역시 AI 인프라 고도화의 핵심 부품으로 꼽혔다. 반도체 칩의 성능이 높아지고 데이터 이동량이 늘면서 기판은 면적이 커지고 층수가 많아지는 동시에 정밀한 배선과 방열 성능까지 요구받고 있다. 특히 고성능 반도체에 쓰이는 FC-BGA 기판은 기술 난도가 높아 수요 증가에 맞춰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1193개사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전년보다 37곳 줄어

금융감독원이 2027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사전통지했다. 대상은 1193개사로 전년보다 37개사(3.0%) 줄었다.

금감원은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404개사와 직권 지정 789개사에 감사인 지정 결과를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지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회사는 474개사이며, 나머지 719개사는 기존 지정 사유 등에 따라 2년차 이상 연속 지정됐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대신 금융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상장사 88개사와 대형 비상장사 4개사 등 92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기존 주기적 지정 대상 312개사는 동일한 감사인을 2~3년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했다.

직권 지정은 재무기준 미달이나 관리종목 지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용한다. 신규 대상은 상장 예정 222개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106개사, 관리종목 13개사 등을 포함한 382개사다. .

/허정윤 기자

KB증권, 베트남 미래세대 교육 지원

배움터 조성하고 장학금 전달

KB증권은 베트남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무지개교실' 완공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지개교실'은 국내외 미래세대의 학습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KB증권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2009년 시작해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이번 베트남 '무지개교실'을 포함해 국내 25개소, 해외 17개소 등 총 42개소를 완공했다.

KB증권은 지난 14일 베트남 하이퐁시 락비엔(Lac Vien) 중학교에서 '해외무지개교실'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야외도서관'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실'을 조성했다. 또한 노후한 과학교실을 개보수해 창의적 탐구 학습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학습환경을 마련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전쟁 뚫고 검역 넘었다… '횡성한우', 카타르 첫 정식 수출

라마단 행사 무산 7개월 만에 결실
정부·지자체·기업 협력 장벽 극복
첫 물량 80.8kg 선적·현지 판촉 돌입
할랄시장 확대로 중동 공략 탄력



코트라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횡성군,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10월 13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횡성한우 첫 물량을 선보이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카타르 현지 수입 및 유통사 더 미트 마켓 관계자가 카타르 시장에 첫선을 보이는 한우 채끝 부위를 손질하고 있다. /코트라

대한민국 명품 한우 브랜드 횡성한우가 이슬람권 할랄 시장인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카타르에 처음으로 정식 수출됐다. 지난 3월 중동 정세 악화로 라마단 한우 홍보 행사가 하루 전 무산된 지 7개월 만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잇따른 악재를 극복해낸 결과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횡성군,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지난 10월 18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횡성한우 첫 물량을 선보이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일궈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 코트라는 당초 올해 3월 1일 도하의 한식당에서 횡성한우를 주메뉴로 한 '한식 이프타르' 행사를 열 예정이었으나, 행사 전날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100여 명 규모의 행사가 최종 취소됐다.

◆라마단 행사 하루 전 전쟁… 비즈니스 이어가

출장단 일부는 항공편 결항으로 입국조차 하지 못했으나, 먼저 도착한 할랄 인증 도축·가공업체 횡성케이씨 관계자 3명은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3월 3일 카타르 최초 프리미엄 정육점 '더 미트 마켓'과 유통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귀국길마저 가로막혀 대사관이 긴급 지원한 차량으로 육로 국경을 넘어 10시간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이동한 뒤 마닐라를 경유해 인천으로 귀국하는 등 고난을 겪었다.

비록 행사는 무산됐으나 현장에 도착한 샘플 35 킬로그램을 활용해 카타르항공 케이터링 등 잠재 구매기업에 시식용을 제공하고 관저 시식회를 여는 등 판로를 미리 다져두었다.

◆ 수입 '불가'에서 '허용국'으로… 7개월 만에 첫 선적

더 큰 관문은 까다로운 현지 수입 제도였다. 한국은 구제역 백신 접종국이어서 쇠고기 수출길이 막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사관과 코트라는 4월 카타르 공공보건부 식품안전국과의 첫 면담을 시작으로, 농식품부와 공공보건부 간 위생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를 지원했다. 아울러 공공보건국 할랄 인증 인정기관 명단에 잘못 기재돼 있던 한국 인증기관 명칭을 바로잡았다.

그 결과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지난 8월 '냉장·냉동 뼈 없는 쇠고기' 수입 가능국에 한국을 추가하고, 9월 초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통보했다. 이후 양국 기업이 식품등록 등 과정을 거쳐 10월 13일 초도 수출물량 80.8kg을 항공편으로 실어 보냈다.

현지 마케팅도 본격화됐다. 지난 18일 '더 미트 마켓' 매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홍지표 주카타르 대사와 공공보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품질관리 체계를 확인했다. 이어 19일에는 주카타르 한국대사관 국경일 기념행사에 홍보관이 마련됐다. 22일부터는 카타르 대표 유통망 3곳과 연계한 쇼핑 페스티벌이 열리며, 연말까지 한식 소비를 늘리기 위한 현지 홍보가 이어진다.

◆할랄 시장 세 번째… 중동 전역 확산 기대

횡성한우는 국내 유일의 할랄 도축장인 횡성케이씨에서 생산되며, 한국이슬람교중앙회와 일본 할랄 인증기관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는 말레이시아(2023년), 아랍에미리트(2025년)에 이은 한우의 세 번째 할랄 수출시장으로, 이번 진출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아랍에미리트 외 두 번째 시장을 확보했다.

특히 카타르 시장의 성장 여지도 크다. 카타르는 적색육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며, 쇠고기 수입액은 2019년 9700만달러에서 2024년 1억8000만 달러로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유망시장이다. 여기에 1인당 국민소득 7만 달러의 고소득 소비층과 고급 호텔·외식 산업이 고품질 육류 수요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김준규 코트라 중동지역본부장은 "중동 전쟁 발발과 라마단 판촉 행사 취소, 출장단의 육로 귀국, 검역 협상의 벽까지 한우의 카타르 첫 수출에 이르는 과정은 고비의 연속이었다"며 "이번 성과는 기업·지자체·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달려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카타르 수출을 발판으로 한우가 중동 프리미엄 육류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코트라는 향후 뼈 있는 쇠고기 수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이번에 쌓은 경험을 인근 중동 국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T, K-푸드 수출 애로 원스톱 해결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허브 본격 가동
AI·전문가 연계 3단계 맞춤 상담
관세·통관·물류 등 11개 분야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온라인 시스템 가동을 시작했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부터 해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A-B-C-D-E)'의 B전략(원스톱 애로 해소)의 일환이다. 또 지난 9월 발표한 '하반기 K-푸드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한 부스트 전략'의 '기업 현장 맞춤형 핀셋 지원'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aT를 간사기관으로 지정했고 K-푸드 지원 허브가 출범하게 된 것. aT 온라인 게시판 및 대표번호로 수출 애로 상담 창구를 일원화했다.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상담은 총 637건으로, 관세·통관, 위생·검역, 물류, 해외인증, 지식재산권 등 11개 분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분쟁 상황에 대응해 운송·물류, 외환 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하역 항구 변경과 우회 운송 등 긴급 애로에 대응해 왔다. 최근 상담 수요가 늘고 애로 유형도 복잡해짐에 따라, 상담 접수부터 처리·평가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새 시스템의 핵심은 수출기업의 애로 유형과 난이도에 따른 3단계 맞춤형 상담 체계다. 먼저 단순 정보는 농식품 수출정보 사이트(KATI)의 AI 서비스 'ChaTi(채티)'가 24시간 내내 즉시 답변한다. 일반 상담은 공개·비공개 게시판에서 접수하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심층 애로는 분야별 전문가와 전화·화상·채팅을 통한 1:1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다른 기업의 공개 상담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도 제공해 유사한 애로의 해결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협업한다. 관계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및 12개 유관기관 및 협회와 핫라인으로 연결돼, 접수된 애로가 유형에 따라 담당 기관으로 바로 이관된다. 각 기관 담당자는 처리 현황과 상담 이력을 실시간으로 공유·추적할 수 있다. 또 여러 분야가 얽힌 복합 애로는 aT 내 '애로해소 매니저'를 지정해 해결될 때까지 관리한다.

상담 품질 관리와 후속 지원도 강화한다. 상담을 마친 기업이 직접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는 민간 전문가 인력풀 관리에 반영한다. 추가 심층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조사 등 후속 지원으로 연결한다.

K-푸드 지원 허브는 농식품 수출기업과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 생산자단체 등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부산항 '해범이와 뿌뿌' 공공부문 대상

전국 공공캐릭터 공모 최고상 영예



'공공캐릭터 페스티벌' 행사장 내 마련된 BPA 홍보관.

부산항만공사(BPA)의 공식 캐릭터 '해범이와 뿌뿌'가 '2026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대상 공모전'에서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9일 공사에 따르면 '해범이와 뿌뿌'는 범고래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부산항과 BPA의 주요 사업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 중이다.

공사는 그간 '해범이와 뿌뿌'를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산항과 BPA를 알리고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부산항 축제 등 행사참여를 비롯해 홍보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이벤트, 캐릭터 굿즈 개발 등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부산항과 '해범이와 뿌뿌' 캐릭터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산항을 친근하게 알리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와 대전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올해는 공공기관 42개, 지자체 10개, 축제 10개 등 총 74개 캐릭터가 참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발전5사 통합 추진 속 고용·부채 대책 공백

내년 10월 '한국발전' 출범 목표
자회사 25곳·고용인력 3619명 달해

내년 10월 '한국발전' 출범을 목표로 발전5사 통합이 추진 중이지만, 자회사 고용안정과 부채 승계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동서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5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5사는 2026년 기준 국내 6개, 해외 19개 등 총 25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인력은 국내 3115명, 해외 504명 등 총 3619명이다. 국내 자회사 인력은 2023년 2891명에서 2026년 3115명으로 224명(7.7%) 증가했으며, 기간제는 같은 기간 89명에서 179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발전5사는 통합에 따른 자회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통합 방향에 따라 추가 검토·수립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남동발전은 LNG 건설 대체사업장 등 적정 재배치를, 남부발전은 통합 용역계약의 고용유지·승계를, 동서발전은 정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발전5사 자회사 부채는 2026년 기준 총 8020억 원(국내 565억 원, 해외 7455억 원) 수준이다. 해외 부채 중 남동발전(약 3328억 원)과 중부발전(약 2917억 원)이 전체의 83.8%를 차지한다. 특히 국내 부채 565억 원 가운데 312억 원은 직원이 단 4명인 서부발전 자회사 창기태양광의 부채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식콘서트서 만나는 우리 바다의 맛

한식진흥원, 30일 서울서 콘서트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10월 한식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예정된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음식문화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19일 한식진흥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명장 안유성 명장이 연사로 나서 바다 식재료의 가치를 조명한다.

안 명장은 오랜 현장 경험과 숙련된 조리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바다 식재료의 가치를 알려온 요리 전문가다. 명장의 경험과 시선을 통해 바다 식재료가 지닌 고유한 맛과 특성, 음식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담긴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또 변화하는 식생활과 소비 환경 속에서 바다 식재료의 활용 가능성을 짚어 본다. 자원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 음식문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 접시의 음식에 담긴 식재료와 사람, 그리고 문화의 의미를 되새긴다.

한식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바다의 맛과 식재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를 우리 미래의 음식문화로 이어갈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노화를 되돌리다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주 제 노화를 되돌리다 :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일 시 2026년 10월 21일(수)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제약 · 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고급 3단 완전자동 양우산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 프로그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백종헌** 국회의원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 : 항노화 연구의 동향과 미래 전망; 노화 진단 및 치료
강연	15:00~15:30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 센터장 : 노화의 이해 그리고 미래 전략
	15:30~16:00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 : 노화 치료의 새로운 표적, 면역 리프로그래밍
	16:00~16:3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 3차원 미니장기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항노화 물질 개발 전략
	16:30~17:00	**양재현**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 세포의 정보로 이해하는 노화와 역노화

metro · metro경제

경기도, 김진석 소방위 영면 애도… "현장 안전에 책임 다짐"

부천체육관서 경기도청장 영결식 엄수
유가족·동료 2730여 명 마지막 배웅
추미애 지사 "희생 가슴에 새길 것"
소방관 근무환경·처우 개선 약속
1계급 특진 추서… 서울현충원 안장



故 김진석 소방위 연결식.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던 소방관이 끝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마지막 길에는 동료와 유가족, 시민들의 깊은 애도가 함께했다.

김 소방위의 영결식이 19일 오전 부천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장의위원장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최용철 소방청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회의원과 도의원, 동료 소방관 등 2,73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희생을 기렸다.

추 지사는 영결사에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한 분의 소중한 소방관을 떠나보내고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함께하던 동료를 잃은 소방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소방위는 위급한 순간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심정지 환자를 살린 공로로 여러 차례 하트세이버를 수상했으며, 지난 1월에는 부천시 원종동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에서 4층 주민들을 구조해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추 지사는 고인의 발자취를 언급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이웃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전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며 "소방관의 사명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분"이라고 추모했다.

이어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분이 정작 자신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프다"며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을 어떤 말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추 지사는 고인의 희생이 추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김진석 소방위의 이름을 가슴속에 천근의 무게로 새기겠다"며 "소방관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더욱 철저히 살피겠다"며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고인에게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했다. 김 소방위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고인이 지키려 했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상이었을 것이다.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소방관의 이름은 남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새겨질 것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경북 곳곳 물든 황금빛 은행나무 길

경북문화관광공사, 이달 여행 명소 선정
수백 년 세월 품은 은행나무 노거수 12곳


청도군 청도읍 적천사 경내에 자리한 수령 약 840년의 천연기념물 은행나무가 황금빛 단풍으로 물들어 가을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선보이는 '사진으로 만나는 경북 여행'의 10월 주제로 가을 산책에 어울리는 경북 은행나무 노거수 명소 12곳을 선정했다.

가을바람이 불고 산과 들이 물들기 시작하는 10월, 도내 은행나무 노거수는 수백 년의 세월과 역사·설화를 간직한 경관 명소로 소개됐다. 이번 자료에는 경주·구미·영양·상주·김천·영주·영천·안동·청도 등 9곳의 위치와 특징이 담겼다.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78번지 운곡서원 은행나무는 수령 약 370년, 높이 30m, 줄기둘레 6m에 이른다.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436번지 은행나무는 수령 약 400년, 높이 25m의 천연기념물이다.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394-1번지 서석지에는 수령 약 440년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조선 광해군 때 조성된 전통 정원의 연못과 정자 곁에서 약 130평 규모의 그늘을 드리우며 황금빛 가을 풍경을 만든다.

상주시 은척면 두곡리 640번지 외 4필지에 자리한 '환생목'은 수령 470년, 높이 15m다. 열매를 많이 맺어 마을에서 '덕목'이라 부른다.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섬계서원 뒤뜰의 은행나무는 수령 약 600년, 높이 28m의 천연기념물이다.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번지 소수서원에는 수령 약 500년의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자리한다.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501번지 임고서원 입구에는 정몽주를 추모하는 서원과 어우러진 수령 약 500년, 높이 30m의 은행나무가 있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북교육청, 울릉도에 독도교육 거점 조성

24일 옛 울릉초 장흥분교서 착공식
독도의 날 맞아 역사·영토주권 되새겨

경북 울릉도에 전국 학생들이 독도 역사와 자연환경, 영토주권 의미를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독도교육원이 들어선다. 경북교육청은 24일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옛 울릉초등학교 장흥분교 부지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 착공식 및 독도의 날 행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6주년을 맞아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울릉도와 독도를 연계한 현장 체험형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행사에 앞서 경북교육청 관계자와 도내 J-ROTC 학생 등 참가자들은 독도를 방문해 역사와 자연환경을 살펴볼 예정이다.

본 행사에서는 독도 탐방 기념 영상 상영과 식전 공연, 독도교육원 건립 개요 보고, 착공 선포식, 특별공연 등이 진행된다. 김소영 작가는 대형 붓을 활용한 '붓의 춤' 공연을 통해 '경북교육, 독도를 품다'라는 글씨를 완성한다. 울릉도 학생들로 구성된 어린이독도의용수비대도 독도의 역사와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을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독도교육원은 옛 울릉초 장흥분교 부지 4685㎡에 연면적 4405.38㎡,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2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다. 2028년 9월 준공 계획이다.

교육원이 완공되면 전국 학생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찾아 역사와 자연환경을 배우고 영토주권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거점으로 활용된다.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주권 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경북=김진곤 기자

인천, 세계 직접판매대회로 MICE 위상 강화

韓 첫 유치… 33개국 600여 명 참가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10월 19~21일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6 WFDSA 직접판매세계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 최초 개최인 이번 대회에는 33개국 600여 명이 참가해 업계의 미래와 글로벌 트렌드를 논의한다.

첫날인 19일에는 송도·영종도·개항장을 도는 3개 코스의 '인천 시티투어'가, 20일 저녁에는 상상플랫폼에서 인천항 야경을 배경으로 한 '선셋 디너'가 열린다. 인천시와 관광공사는 이를 통해 인천의 매력과 상상플랫폼의 이색 회의 명소 가능성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시와 공사는 원활한 투어 및 선셋 디너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더해 인천 마이스얼라이언스와 공동으로 관광안내 부스 및 K-콘텐츠 체험존을 운영하는 등 대회의 풍성함을 더한다. 아울러 글로벌 업계 리더들에게 인천의 우수한 MICE 인프라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각인시켜, 향후 관련 행사 유치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직접판매업계 리더들에게 글로벌 MICE 도시 인천의 경쟁력을 직접 선보이는 기회"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향후 관련 업계의 후속 행사들이 인천에서 열릴 수 있도록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경북, 스마트 농산물 유통 전국 최다 선정

내년 스마트 APC 공모 6곳 선정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6곳을 선정받아 국비 69억원을 확보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전국 20곳이 신청해 16곳이 선정됐으며 여기에 경북은 가장 많은 6곳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의 APC는 김천농협, 문경 신미네, 경산 자인농협, 영양군, 청도농협, 성주 선남농협 등이다.

이들 APC는 국비 69억원에다 도비 34억, 시군비 34억, 자부담 52억여원을 투입한 총사업비 189억원을 들여 인공지능(AI) 선별과 로봇 자동화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지역 APC의 농산물 품질 균일화와 상품화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PC 스마트화'는 경북도의 농업대전환의 핵심 과제다. 내년에는 현재 추진 중인 5곳과 이번에 선정된 6곳을 합해 모두 11곳에서 'APC 스마트화' 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에 모두 25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BIFC 금융 전문기업 3곳 유치

부산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디스페이스(D-Space)에 금융 전문 기업 3개사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하는 기업은 선박금융 전문 기관 '세계로선박금융', 선주책임상호보험(P&I) 전문 기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국민성장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디인베스트먼트' 등 3개사다. 이번 유치를 통해 디스페이스에는 기존 입주 기업 7개사에서 총 10개 기관으로 입주사가 늘어난다. 선박 투자·운용 및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며,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해운기업의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디인베스트먼트는 민간 투자 자본 유입과 성장기업 투자를 담당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홍보 캐릭터 '벼리' 전국 최우수

경남도 홍보 캐릭터 '벼리'가 지난 17일 열린 '2026 대한민국 지자체·공공캐릭터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정부·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전문가 심사와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종합해 결정됐다. 벼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출품한 캐릭터들과 경쟁해 정부·지자체 부문에서 선정됐다. 벼리는 2024년 5월 출시된 뒤 전국 박람회와 축제에 참여해 경남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다. 경남도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캐릭터 저작 재산권을 개방하고 팝업스토어도 운영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창원시

SMR 중심 원전산업 육성 박차

창원시는 소형 모듈 원전(SMR)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아 원전 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지역 원전 산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SMR의 제조부터 시험·검사까지 전 주기를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대상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광명시

5만 석 복합 돔구장 유치 시동

광명시가 5만 석 규모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유치를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시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유치를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돔구장 건립사업 공모에 대응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접근성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문화복합단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주요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유치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광명(경기)=김예원 기자 ywon@

식품업계, R&D·마케팅 체질개선… 비용 낮추고 수요 잡는다

고비용·고리스크 구조 탈피 움직임
소비자 참여 '크라운드 R&D' 확산
기존 인기제품 활용 이색제품 출시

원가 상승과 내수 부진, 해외 생산 인프라 투자 부담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식품업계가 제품 개발과 마케팅 방식에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전통적 R&D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자를 제품 기획과 프로모션에 직접 참여시키는 '크라우드 R&D(Crowd R&D)'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고비용·고리스크 구조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매출 3조 원 이상 주요 식품기업 10곳의 지난해 R&D 비용은 총 4120억 원으로 전년(4208억 원) 대비 2.1% 감소했다. 매출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낮다. CJ제일제당의 상반기 R&D 비중은 1.14%로 2년 연속 하락했으며, 농심(0.7%), 오뚜기(0.58%), 롯데웰푸드(0.66%) 등 이들 기업의 R&D 비중은 수년째 1%를 밑돌고 있다.

이처럼 R&D 투자가 둔화한 것은 원가와 환율 부담에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R&D에 충분한 자금을 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너구링. /농심



배스킨라빈스 10월 이달의 맛 2종. /배스킨라빈스



'찰떡조합 오디션' 이미지. /굽네

R&D 여력이 제한되고 신제품 트렌드 변화 주기가 극도로 짧아지자 식품업계는 사전 수요를 검증할 수 있는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채택하며 '크라우드 R&D'로 활로를 찾고 있다. 대규모 개발비를 투입하는 대신, 모디슈머의 아이디어를 적극 채택해 제품화하는 방식이다.

농심은 소비자들이 스낵 '양파링'에 라면 '너구리' 스프 등을 첨가해 흔들어 먹는 자발적 레시피에 착안해 신제품 '너구링'을 전격 출시했다. 이미 시장에서 입증된 조합을 제품화함으로써 초기 R&D 비용과 실패 리스크를 동시에 최소화했다.

배스킨라빈스의 경우 소비자 아이디어 공모전인 '2026 그래이맛 콘테스트'를 통해 접수된 4만 3000여 건의 아이디어 중 투표를 거쳐 '몬스터 크런치 쿠키'와 '말차에 바나나'를 10월 이달의 맛으로 선보여 초기 구매 수요층을 확보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연구소 중심의 타깃 테스트와 시제품 생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지만, 크라우드 R&D 방식은 사전 수요가 입증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타임투마켓(Time-to-Market) 단축과 R&D 효율성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참여형 전략은 마케팅 관점에서도 기업의 고객 확보 비용(CAC)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 소비자가 숏폼 콘텐츠와 SNS 이벤트를 통해 단순 소비자를 넘어 '공동 창작자(Co-Creator)'이자 '자발적 프로모터'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정식품은 요리 간편 육수 '간단요리사 담백한 채소육수'를 활용한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대형 매체 광고 집행 없이 자발적 바이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앤푸드 굽네 또한 신제품 '서울엄마 파기름떡볶이 치킨'의 토핑 및 사이드 조합을 제안받는 '찰떡조합 오디션'으로 팬덤형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전략은 양파링, 너구리 등 기존 인지도가 높은 장수 브랜드(Cash Cow)에 소비자 아이디어를 결합함으로써 Z세대 유입을 유도하고 브랜드 자산을 재활성화하는 '브랜드 리프레시(Brand Refresh)' 효과로도 이어진다.

증권가 한 유통 담당 연구원은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기업의 비용 효율성 제고는 실적 방어의 핵심"이라며 "소비자 참여를 통한 크라우드 R&D와 CAC 절감 전략은 단기 마케팅 이벤트를 넘어 식품업계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 전략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김 제품 확대… "글로벌 시장 선도"

'비비고 김부각' 누적 50만봉 판매
캔김 등 프리미엄·소용량 세분화

CJ제일제당이 김부각에 이어 캔김을 출시하며 김 제품군 확대에 나섰다. 김부각의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프리미엄·소용량 제품을 강화하고 국내외 소비자 수요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6월 선보인 '비비고 김부각' 3종이 9월 말 기준 누적 판매량 약 50만 봉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찹쌀·매운맛·새우맛으로 구성된 김부각은 출시 첫 달보다 7월 판매량이 약 1.6배 늘었으며, 이후에도 매월 안정적인 판매 흐름을 이어갔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도 판매가 늘고 있다.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등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글로벌 특화점포의 매출 비중은 70%에 육박했다. 현재 이마트와 편의점, 올리브영, 쿠팡, CJ더마켓 등으로 판매 채널을 넓힌 상태다.



비비고 김부각 3종 캔김 2종 제품. /CJ제일제당

이달 초에는 '비비고 초사리 곱창김'과 '비비고 임자도 곱창김' 등 캔김 2종을 출시했다. 매년 초겨울 첫 수확 시기에 채취하는 곱창김 원초를 사용했으며, 밀폐형 캔 포장으로 보관 편의성을 높였다.

CJ제일제당은 최근 프리미엄 김과 소용량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점에 주목했다. 닐슨 기준 캔김 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7% 성장했으며, 올해 추석 프리미엄 김 선물세트 매출도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캔김은 CJ더마켓과 쿠팡,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향후 대형마트와 편의점으로 입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대형마트 점포를 중심으로 시식 행사와 현장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로 국내외 김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온, '온쇼페' 흥행… 트래픽 20% ↑

롯데온이 30주년 기념 쇼핑 축제 '온세상 쇼핑 페스타(온쇼페)' 행사 트래픽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집계 기간은 12일부터 16일까지며 같은 기간 신규 회원 수도 10% 늘었다.

롯데온은 행사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매일 3개씩 새로운 포인트백 상품을 공개한다. 20일에는 디스커버리 올버트 경량 패딩·인스탁스 미니13 위글위글을,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닌텐도 스위치 OLED 화이트·롯데자이언츠 가을점퍼·스토케 젯키즈 및 트래블백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대 20% 할인 쿠폰을 포함한 7종의 '온쇼페 쿠폰팩'도 매일 제공한다. 스타우브, 틸아이다이, 라 메르, 네파, 베네통, 휘슬러, 쌤소나이트, 내셔널지오그래픽, 메가딜과 에스티 로더, 르샵, 어그 등이 참여하는 '헤리티지 브랜드 위크'도 행사 종료일까지 이어진다.

행사 기간 매일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 '온라이브'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20일에는 오전 10시 롯데월드 5개점 입장권, 오후 3시 프루니크 애플메르 사과즙을 판매하며, 21일에는 오전 11시 에스트라 에이시카365, 오후 3시 세로랩스 인텐스 리페어 크림 방송을 진행한다.

구매 고객을 위한 경품 이벤트도 행사 종료일까지 진행한다. 온쇼페 기간 상품을 구매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오크밸리 4인 라운딩권, 샤롯데 관람권 2매, 롯데호텔 바디워시·로션, 롯데호텔과 파스퇴르가 협업한 우유케이크, 배달의민족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김서현 기자 seoh@

CU
'서울 호펜바이세' 출시

CU가 주류 전문 유튜버 '술익는집'과 서울 대표 브루어리 '서울브루어리'와 함께 크래프트 맥주 라인업을 확대한다.

CU가 21일 서울브루어리, 술익는집과 공동 개발한 세 번째 크래프트 맥주 '서울 호펜바이세'를 출시한다.

이번 신상품인 서울 호펜바이세(500ml, Alc5.2%)는 독일 전통 밀맥주인 바이젠에 홉의 풍미를 더한 호피바이젠 스타일이다. 은은한 바나나·과일 향과 산뜻한 홉 아로마가 조화를 이루며, 부드러운 목넘김과 풍성한 향, 깔끔한 마무리가 특징이다. /김서현 기자

파티센타, '런치루틴' 구독서비스

기업 업무공간으로 사업 확대

제너시스BBQ 그룹 계열사 파티센타가 공동주택에 이어 기업 업무공간으로 식음 서비스 사업을 확대한다. 기업별 근무 환경과 식사 수요에 맞춘 점심구독 서비스를 앞세워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공략에 나선다.

파티센타는 식음 서비스 브랜드 아이캔리부트(I CAN REBOOT)를 통해 동탄하나로유통센터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점심구독 서비스 '런치루틴(Lunch Routine)'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런치루틴은 별도의 현장 조리시설 없이 기존 식사 공간과 이용 인원,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식사는 파티센타 동탄농협CK에서 조리해 공급한다. 이용자들은 카페형으로 꾸민 직원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업무 일정에 따라 도시락으로 포장해 가져갈 수 있다.

윤지현 파티센타 대표는 "파티센타가 보유한 생산·공급 인프라와 식음 서비스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을 넘어 기업 고객까지 사업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G마켓, '빅스마일데이' 셀러 모집

26일까지 접수… 전방위 판매 지원

G마켓이 연중 최대 쇼핑 행사 '빅스마일데이' 참여 셀러 모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빅스마일데이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진행한다. 셀러 참여 신청은 10월 26일까지 가능하며, G마켓과 옥션에 입점한 사업자 판매자 및 글로벌 판매자라면 카테고리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빅스마일데이 참여 신청은 G마켓 판매관리사이트 'ESM PLUS'에서 가능하다. 최근 1년간 판매 이력과 행사 가격 기준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G마켓은 이번 행사에서 셀러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판매 지원에 나선다.

우선 행사 참여 상품에 적용되는 할인 쿠폰 비용을 G마켓이 전액 부담한다. 행사 참여 상품에는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고, 행사 상품만 모아볼 수 있는 검색 필터 기능도 제공한다. 홈 메인과 검색 등 주요 쇼핑 동선에서 상품 노출을 확대해 판매 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광고 지원 혜택도 마련했다. 신규·휴면 셀러가 11월 13일까지 G마켓 'AI Product Ads', 옥션 'AI매출업·파워클릭' 등 광고상품을 이용하면 광고비의 30%를 최대 10만원까지 페이백 한다. 이와 별도로 각 광고 상품을 신규 이용하는 셀러에게는 상품별로 5만원 상당의 광고 이머니를 지원한다. /김서현 기자

암세포만 정밀 타격… K-바이오, 차세대 면역항암 승부수

HLB 그룹, 고형암 치료제 임상 진행
지씨셀, T세포 림프종 신약 1b상 돌입
앱클론, 스위치형 CAR-T 기술 특허


앱클론 연구원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앱클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존 항암 치료제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면역세포치료제'로 승부수를 던진다.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넘기 위한 데이터를 쌓고 있다.

1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미 글로벌 상업화를 확보한 선두 기업들은 암종 불문 영역에 도전하며 후속 파이프라인을 구체화하고 있다.

담관암 치료제 '리픽투'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HLB그룹은 고형암 CAR-T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그룹 내 계열사 HLB이노베이션의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는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면역항암학회(SITC 2026)에 참가한다. 독자 개발한 플랫폼 기술 'KIR-CAR'의 기술적 차별점을 입증하는 전임상 생체 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CAR-T 치료제는 암세포를 찾는 부위와 공격 신호를 내는 부위가 하나로 연결된 단일사슬 구조였다. 이로 인해 공격 신호가 쉼 없이 과도하게 켜져 면역세포가 금방 지쳐버리는 'T세포 탈진'이 발생하고 체내 독성이 커지면서 고형암 치료는 한계에 부딪쳤다.

베리스모의 KIR-CAR는 자연살해(NK)세포의 자연스러운 수용체를 모방했다. 암세포 탐지 부위와 공격 신호 부위를 분리한 '다중사슬' 구조를 구현했다. 평소에는 두 부위가 따로 떨어져 있다가 암세포를 발견했을 때만 서로 결합해 공격 신호를 보낸다. 필요한 순간에만 작동해 면역세포의 피로도를 낮추고 독성 방출을 줄여 고형암 환경에서 오래 살아남아 암을 공격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한 파이프라인은 'SynKIR-110'이다. 현재 미국에서 췌장암, 난소암, 중피종 등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기관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다.

전통 제약사 GC녹십자 역시 자체 파이프라인을 통해 첨단 의약품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GC녹십자 계열사 지씨셀은 신약 후보물질 'GCC2005(CD5 CAR-NK)'의 임상 1a상 용량 증량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어 임상 1b상 개시와 함께 첫 대상자 투약을 완료했다. 권장 임상 2상 용량(RP2D)을 확정하고 국내 기관을 최대 6곳으로 확대해 후속 글로벌 임상을 계속할 계획이다.

GCC2005는 T세포 림프종에서 주로 발현되는 CD5를 표적하는 4세대 동종 유래 CAR-NK 세포치료제다. 면역조절물질 인터루킨-15(IL-15)를 동시 발현하도록 정밀 설계해 면역 세포 활성과 체내 지속성을 높였다.

또 환자 자신의 세포를 추출해 제조해야 하는 자가 CAR-T와 달리 동종 유래 세포를 활용함으로써 대량 생산과 치료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지씨셀 측은 "앞서 1a상 저용량 투여군에서 완전관해(CR)에 도달해 18개월 이상 유지된 장기 추적 결과를 입증한 만큼, 향후 표준치료에 실패한 재발·불응성 환자는 물론 2차 치료제 확장 가능성까지 검토해 글로벌 림프종 시장의 미충족 수요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항체 신약개발 전문기업 앱클론은 특허권을 굳히며 기술이전 협상 주도권을 다지고 있다.

앱클론은 차세대 면역항암제 플랫폼 '스위처블 CAR-T(zCAR-T)'와 관련해 스위치 물질을 포착하는 '코티닌 특이적 신규 항체 및 키메라 항원 수용체' 기술의 일본 특허 등록을 최종 완료했다.

기존 CAR-T 치료제는 체내 투여 시 지속 활성화되는 '항상 켜진' 상태로 작동해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크고 내성 획득 시 치료 효과가 급감한다. 이와 관련 앱클론은 '스위치 분자'를 중간 매개체로 해 CAR-T 치료제의 활성도를 전기 스위치처럼 켜고 끌 수 있게 만들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 스위치 분자만 교체하면 난소암, 위암, 유방암 등으로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앱클론 측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등록을 마친 '스위치 분자' 특허에 이어 '수용체' 특허까지 완성하면서 zCAR-T 플랫폼의 지식재산권(IP) 장벽을 완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올리브영, 경주에 135평 체험형 매장 오픈

지역 문화, K-뷰티 결합한 관광형 매장
차 향 체험존, 피부 진단 서비스 공간



CJ올리브영 경주신라점 전경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이 K뷰티에 경주 고유의 역사 문화와 체류형 휴식을 결합해 K쇼핑 고도화를 위한 콘텐츠를 제시한다.

올리브영은 경주 지역 최대 규모의 지역 특화 매장인 '올리브영 경주신라점'을 개점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주신라점은 경주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하며 2개 층과 약 135평 규모를 갖췄다. 외관에는 전통 한옥 양식을 적용해 거리 풍경과 조화를 이룬다. 내부에는 신라 유물과 토우를 재해석한 작품을 배치해 마치 전시관에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이번 매장은 유적지 방문부터 맛집, 카페, 야경 등을 여유롭게 즐기는 '체류형 여행'에 발맞춰 최신 유행을 적극 반영했다. 휴식과 K뷰티 체험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매대 밀도를 낮춰 1~2층 안팎에 테라스, 벤치 등을 배치해 휴게 시설을 조성했다. 매장 체험 요소도 오감(五感) 중심으로 한층 다양화했다. 1층에는 차 향을 맡아보며 여유를 느끼는 '차 시향존'과 자유롭게 방문 소회를 남기는 '고민 방명록'을 구성했다. '괄사아일랜드'에서는 다양한 괄사 제품을 활용해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다. 퍼스널컬러 및 얼굴·두피 상태를 직접 정밀 진단하는 '스킨스캔 3종' 기기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석굴암, 첨성대 등 경주 대표 문화재를 주제로 한 마그넷, 키링 등 경주 신라점 전용 'K굿즈'도 선보여 관광 기념품의 소장 가치를 더했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2024년 황리단길 '경주황남점'에 이어 이번 경주신라점을 추가함으로써 경주 주요 관광 거점을 잇는 특화 매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63년 혁신 발판 삼아 새 도약

창립기념식서 우수 직원 160명 포상


최성원 광동제약 비전 총괄 대표이사 회장이 19일 열린 창립 63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창립 6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짚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창립기념식은 최성원 비전총괄 대표이사 회장과 박상영 경영총괄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광동제약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성원 비전총괄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제약기업으로서의 전문성과 탄탄한 내실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난 63년간 이어온 도전과 혁신의 역사를 발판 삼아 각자의 자리에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박상영 경영총괄 대표이사는 포상 수여식에서 160여 명의 수상자에게 상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세경 기자 seibee@

마몽드, '국민 틴트 밤' 10주년 맞아 재출시

보습 성분 강화하고 밀착력 높여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브랜드 마몽드가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하며 '국민 틴트 밤'으로 큰 사랑을 받은 대표 립 메이크업 제품의 10주년을 기념한다. 특히 재출시 요구에 부응하며 신제품에는 최신 스킨케어 기술력을 탑재해 경쟁력을 높인다.

마몽드는 재단장한 '크리미 틴트 컬러 밤'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제품 특유의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은 유지하면서 뭉침 없이 매끄럽게 밀착되도록 제형을 개선했다. 플라워 추출물, 시어버터, 세라마이드 등 보습 성분을 강화해 입술 건강도 관리할 수 있다.

색상은 총 6가지로 구성했다. 인기 색상인 '벨벳레드'와 함께 '칠링체리', '로지타로', '피치넛츠', '헬시로즈', 올리브영 단독 '멜로로즈' 등을 새롭게 내놓는다. 또 립 메이크업 전 단계에서 입술 바탕을 매끄럽게 정돈하는 크리미 틴트 프렙 밤을 선보여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을 모두 완성할 수 있다.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 밤.

마몽드 관계자는 "이번 재출시는 브랜드의 헤리티지 제품을 아껴준 고객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30년 플라워 연구 기반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킨케어부터 립 메이크업까지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화약품, '소다활' 레몬라임맛 선봬

매실맛 흥행 탄력에 신제품 확장

동화약품이 제로 탄산음료 브랜드 '소다활'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제품군을 확장하며 외식 및 음료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다진다.

동화약품은 신제품 '소다활 레몬라임맛'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다활 레몬라임맛'은 레몬착즙액과 라임농축액을 더해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마시기 좋은 깔끔한 맛을 구현했다. 식사 중이나 식사 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제로 탄산의 청량함과 상쾌함도 갖췄다.

동화약품은 이번 신제품 출시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소다활 브랜드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식후 더부룩함을 '먹취'라는 유쾌한 키워드로 풀어낸 '먹취해소' 캠페인을 펼친다.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한 걸그룹 오마이걸의 미미와 함께 숏폼 및 유튜브 콘텐츠를 선보이고 인플루언서 협업, 푸드 트럭 행사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5월 첫선을 보인 '소다활 상큼한 매실맛'의 경우, 출시 4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량 400만 병을 돌파했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오쏘몰 비타민C 디포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 450% 수준

동아제약의 고급 멀티비타민 브랜드 오쏘몰이 기존 멀티비타민 중심에서 단일 영양소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동아제약은 비타민C가 서서히 방출되는 지속성 정제 제품 '오쏘몰 비타민C 디포'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비타민C 성분을 처방했다. 하루 2정으로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450% 수준인 비타민C 450mg을 충족할 수 있다. 항산화 기능은 물론 철의 흡수, 체내 결합조직 형성 및 유지 등도 돕는다. /이청하 기자

www.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뉴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시스와 손을 잡고 뉴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시스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뉴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시스!

시장독점에 대항해 설립된 뉴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newsis.com



타이어뱅크, '이웃사랑 실천릴레이' 70호 선정

타이어뱅크는 지난 16일 강원도 홍천군 연봉리 타이어뱅크 홍천점에서 '이웃사랑 실천릴레이' 70호 주인공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홍천군지회 민경란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민 회장은 약 20년간 홍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급식 지원과 지역행사 지원, 환경정화,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타이어뱅크



한국앤컴퍼니그룹,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진행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 17일 경기 용인 기흥구 기흥초등학교와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밀알복지재단과 함께한 올해 세 번째 벽화 봉사에는 그룹 계열사 임직원과 가족 등이 참여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IPARK현산, 장애인·비장애인 걸기대회 지원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5일 이촌한강공원에서 열린 걷기대회를 지원하고 임직원 10여 명이 현장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소통하고 지역주민 간 교류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고 용산복지재단이 협력했으며, 김경대 용산구청장과 윤우진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부문장(두번째 줄 왼쪽 세번째) 등이 참석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팜젠사이언스, 서달산 환경정화 활동 실시

팜젠사이언스는 지난 16일 방배캠퍼스 임직원이 동작구 서달산을 찾아 유해식물 제거 및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회사는 지자체와 협력해 환경 보호 및 지역 소외층 돕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팜젠사이언스



SK케미칼, 독거 어르신과 문화·여가 나들이

SK케미칼은 지난 17일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일대에서 가족봉사활동 '우리들의 블루(Blue)스'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문화·여가 체험과 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 고립감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SK케미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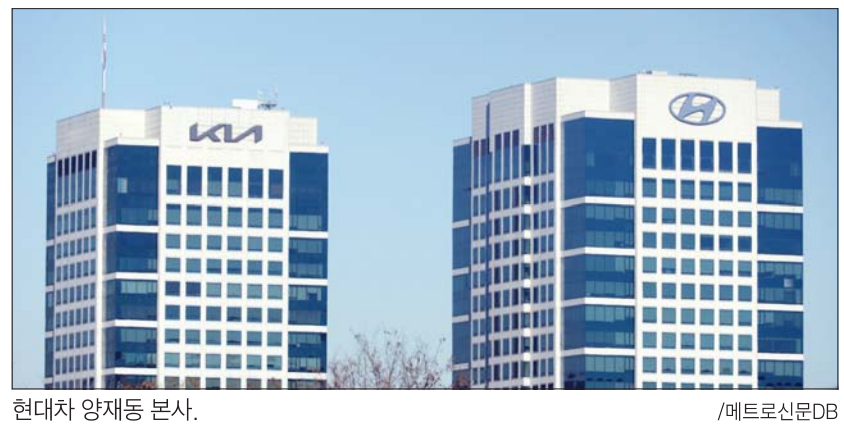
"AI 기술 배우고, 현대차·기아 신입 채용 연계까지"

소프티어 부트캠프 9기 모집
12월 28일부터 8주간 운영
AI 엔지니어 육성 목표

"겨울방학 8주, 현대차·기아에서 AI로 일하는 법 배우고 취업까지 노려보자."

현대자동차·기아가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춘 'AI 엔지니어' 육성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기아는 19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소프트웨어 분야 신입 채용을 연계한 소프티어 부트캠프 9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프티어'는 소프트웨어(Software)와 엔지니어(Engineer)의 합성어이자 차량 소프트웨어 분야의 개척자(Frontier)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차 양재동 본사. /메트로신문DB

소프티어 부트캠프는 현대차·기아가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채용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번 9기는 12월 28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약 8주간 운영되는 채용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9기는 ▲백엔드 개발 ▲데이터 엔지니어링 및 데이터 아키텍트 ▲서비스 기획 등 총 3개 분야에서 지원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2026년 8월부터 2027년 8월 내 졸업을 했거나 졸업을 앞둔 대학생(4년제 국내외 대학/학사 이상)이며, 참가를 원하는 지원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 ICT담당 진은숙 사장은 "소프티어 부트캠프는 모빌리티 서비스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하는 AI 엔지니어 육성을 목표로 한다"며 "소프트웨어 인재 발굴과 AX 촉진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부터 시작된 소프티어 부트캠프는 지난 8기까지 약 600여 명의 교육생을 양성했으며, 수료한 교육생들은 현대차·기아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 IT 기업의 소프트웨어 직군에서 근무하는 등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한국자동차연구원 주행시험장에서 진행한 '2026 현대 모빌리티 플레이그라운드' 행사장 현장 모습. /현대차

현대차, 차량 신기술 체험 행사 열어

'현대 모빌리티 플레이그라운드'
인플루언서·동호회 등 750명 참여

현대자동차가 차량 전시와 시승을 넘어 최신 기술과 고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행사를 열고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 17~18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자동차연구원 주행시험장에서 열린 '2026 현대 모빌리티 플레이그라운드 시즌2'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행사에는 자동차 인플루언서와 구독자, 현대차·제네시스 동호회원 등 약 750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처음 열린 시즌1보다 차량 체험과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첫날에는 자동차 인플루언서 11개 채널과 구독자 약 350명이, 둘째 날에는 현대차·제네시스 동호회원 약 400명이 참석해 차량과 기술을 경험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량과 신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류하며 자동차 문화를 즐기는 현대차만의 차별화된 행사"라며 "차량·기술·서비스를 아우르는 고객 경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롯데칠성음료, '카니버' 협업 마케팅 전개

포레스텔라 키링 등 패키지 판매

롯데칠성음료가 수입·판매하는 미국 와인 '카니버'가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와 협업해 마케팅을 진행한다. 와인 굿즈와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고, 포레스텔라 관련 상품을 담은 한정 패키지도 출시할 예정이다.

협업 대상인 '카니버 카버네 소비뇽'(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카니버 와이너리의 대표 제품이다. 블랙체리 등 검은 과실향에 커피와 바닐라향이 어우러지며, 진한 탄닌감과 풍부한 풍미가 특징이다. 스테이크 등 붉은 육류 요리와 잘 어울린다.

롯데칠성음료는 10월 중순부터 제품 넥택에 드롭스토퍼를 부착해 제공한다. 와인 병목에 끼워 사용하는 드롭스토퍼는 와인이 흘러내리는 것을 줄여주는 도구다. 와인 소믈리에와 포레스텔라가 함께 와인 오픈 방법과 테이블 매너, 테이스팅 등 기초 상식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 2편도 공개한다.



10월 29일부터는 카니버 카버네 소비뇽 1병과 포레스텔라 멤버들의 모습이 담긴 키링, 사인 에코백, 포토카드 등으로 구성한 특별 패키지를 판매한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보틀벙커에서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하며, 10월 22일부터 롯데온 앱에서 800세트 한정 사전예약도 진행한다. 예약 고객은 수령 일시와 픽업 매장을 지정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카니버 와인의 풍부한 풍미와 포레스텔라의 조화로운 음악적 매력을 연결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자 협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화그룹, '점자달력' 4만부 무료 배포

내달 13일까지 신청 접수

한화그룹이 시각장애인의 일상 편의를 돕기 위해 '2027 한화 점자달력' 4만부를 무료로 배포한다.

한화그룹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시각장애인과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점자달력 배포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기관과 단체는 한화그룹 홈페이지에서, 개인은 점자달력 사무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달력에는 날짜와 요일뿐 아니라 음력·절기·공휴일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점자로 담았다. 점자와 일반 활자를 나란히 배치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해 글씨의 농도와 크기 등을 조정했고, 사회적기업 '도서출판 점자'가 제작에 참여했다.

한화그룹의 점자달력 나눔은 2000년 한 시각장애인의 편지를 읽은 김승연 회장이 "시각장애인도 새해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올해는 한글 점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돕는 달력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2027 한화그룹 점자달력. /한화그룹

첫해 5000부로 시작한 점자달력은 올해까지 27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발행됐다. 지난해까지 누적 배포량은 100만부에 달한다. 국내에서 연간 제작되는 것으로 알려진 점자달력 약 5만부 가운데 한화그룹이 제작·배포하는 물량은 4만부다.

한화그룹은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원관희 기자 wkh@

쌍용C&E, 동해서 의료 봉사활동 펼쳐

동국대일산한방병원과 진행

쌍용C&E가 동국대일산한방병원과 함께 강원 동해공장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봉사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19일 쌍용C&E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코로나 대유행기를 제외하고 13년째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손잡고 생산공장이 위치한 동해와 영월지역 내 소외계층과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는 쌍용C&E 본사가 동해 이전을 앞두고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서 상생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다.

의료봉사단은 동해공장 인근 종합기술훈련원에 임시 한방진료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진맥, 침·물리치료 등을 진행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 사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부산지사 본부장 △서부경남 박현철
◆ IBK투자증권 ◇신규보임〈영업상무보〉△자본시장영업부장 전익선 ◇신규보임〈영업이사〉△멀티에셋운용부장 민현두

부 음 ▲김종국씨 별세, 김진태(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김홍태·김혜랑씨 부친상=18일 동수원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21일 오전 7시. 031-213-1640
▲오순희씨 별세, 최순자씨 남편상, 오비호(전 대구 동구청 정책보좌관)씨 부친상=18일 오후 11시, 대구전문장례식장 특108호, 발인 21일 오전 7시30분, 장지 대구명복공원. 053-961-4444
▲허무열 씨 별세, 허정운 신한투자증권 의정부지점장 부친상 = 전남 광주 빛장례식장 6호실, 발인 20일, 062-452-4000.

통의동 보안여관 앞 그 나무



서 선 미의 기후에세이

골목을 지나다 외마디 비명소리를 듣는다. 서슬 퍼런 가을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인다. 소리를 따라 길을 걷는다. 당도한 지점은 서울 통의동 보안여관 앞. 플라타너스로도 불리는 100살 넘은 양버즘나무 둥치에는 리본이 걸려 있다. 나무를 살리자는 말이었다.

서촌의 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부암동 은행나무에 이어 통의동 양버즘나무까지 이어지는 나무의 슬픈 내력은 그곳을 지나는 사람에게까지 스며든다. 언론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지난 5일 이 나무를 베기로 했다. 여기뿐 아니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건너편 두 그루도 벌목 대상이었다.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실제 위험이 예측된다면 그 위험을 줄이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밀 안전진단과 지지대 설치 같은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부암동의 주민들이 환기미술관 앞의 고사 직전에 놓여 있던 나이든 은행나무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었듯이, 통의동 양버즘나무를 지키기 위해 서촌 주민들과 환경단체도 마음을 모았다.

베어질 위기에 놓인 양버즘나무가 늘 바라봐온 건물은 보안여관이다. 낡은 벽지가 그대로 벗겨진 벽에는 예술이 걸려 있다. 붉은 벽돌 건물인 이곳은 1930년대부터 2006년까지 실제 숙박업소로 운영되었으며 시인 서정주와 소설가 김동리, 화가 이중섭 등이 모여든 장소였다. 시인 서정주는 여관에 묵으면서 동인지를 내기도 했다. 문학의 둥지였던 보안여관은 이제 예술 공간이 되었다.

보안여관 앞 양버즘나무는 묵은 아름다움을 입고 있었다. 여관이 지나온 세월을 꼭 닮은 풍모였다. 나무는 그곳을 오가던 사람들의 예측할 수 없는 삶을 담담히 지켜보았다. 나무 몸통에 깊게 팬 잔주름은 사람들의 애환을 하나하나 담은 시간의 얼굴이 아닐까. 여관 앞 도로 건너에는 경복궁의 서문 영추문이 있다. 나무는 이름 그대로 '가을을 맞이하는 문'이라는 뜻을 가진 영추문과 눈 맞추며 긴 시간을 보냈다. 예술·문학, 그리고 역사와 사람.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마주하며 나뭇잎들은 바람이 옆을 지나면 수런거렸을 것이다. 지자체가 무슨 이유로든 후딱 해치워야 할 그저 그런 대상이 아니다.

'나무애사'는 서촌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사람에게 별과 창으로 열린 길을 내어준 오래된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다. 개포주공 1단지에서는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나무 6만여 그루가, 경희궁에서는 130여 그루가, 또 어디에선가 셀 수 없는 나무들이 무참하게 베어지고 있다.

나무는 사람의 벗이자 고향이다. 도시의 숨구멍이 되어 사람의 물리적·정신적 호흡을 돕는다. 특히 도시의 가로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 대기질 개선, 열섬 현상 완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여러 도시에서 가로수로 사용되는 양버즘나무는 탄소흡수량이 높은 수종 중 하나다. 탄소를 많이 품은 나무일수록 베어낼 때 잃는 것도 크다. 베어낸 나무를 태우거나 잘게 부수어 썩히면, 저장된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어 다시 대기로 돌아갈 수 있다.

시민 안전을 우려하는 행정의 사정도 있겠지만 먼저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 오가는 차량들 사이로 100년 넘게 도시의 한 자리를 지켜온,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그저 자신의 몫을 다하며 묵묵히 맞서 온 한 '존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낯익은 건물 앞에서 익숙한 생명으로 서 있는 양버즘나무의 소리가 서촌에 가득하다. 그 소리가 행정에까지 번져 효율과 편의보다 공동체와 생명을 먼저 헤아리게 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탄탄하게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긴축'과 정책의 책임



기자 수첩 김 주 형 〈금융부〉

기준금리는 하나지만, 이를 견디는 힘까지 같지는 않다. 경제 전체가 감당할 수 있는 인상이라도 자금 여유가 없는 차주에게는 다음 달 원리금의 문제가 된다. 긴축의 성과를 평가할 때 평균 지표와 함께 지원이 도달한 시간도 살펴야 한다.

오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7·8월 두 차례 연속 인상에 이은 회의다. 신현송 총재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앞선 금리 인상으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물가 안정과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선제 대응은 필요하다. 물가 상승이 길어지면 생활비 부담은 저소득층에 더 무겁게 돌아간다. 한은도 9월 금융안정 점검에서 금리 상승의 부담을 대체로 감내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취약부문의 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함께 경고했다. 같은 자료에서 지난 6월 말 가계대출 전체 연체율은 0.98%였지만,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는 10.39%였다. 7·8월 인상 이전 수치다. 추가 부담을 흡수할 여력이 긴축에 들어서기 전부터 달랐다는 뜻이다.

부담이 커지는 시점도 다르다. 한은이 과거 자료로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의 가계·기업대출 연체율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시점은 약 15개월 뒤였다.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대출은 약 9개월 전후였다. 평균 지표가 악화한 뒤에야 움직이면 취약부문에는 대응이 늦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위험은 이미 분석돼 있고 대응도 시작됐다. 신 총재는 국감에서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 공조를 강조했고, 한은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뒷받침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했다. 이제는 이런 대응이 필요한 차주에게 제때 도달하는지까지 따져야 한다.

한은은 취약부문의 이자 부담과 연체 추이를 계속 추적해 금리 인상의 효과를 설명할 때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 가운데 실제 이용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신청부터 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총지원액만으로는 차주가 원리금을 감당할 시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알기 어렵다.

긴축의 성적표에는 물가와 시장의 안정뿐 아니라, 회복 가능한 차주가 상환 여력을 잃기 전에 도움을 받았는지도 담겨야 한다. 정책이 시간을 벌었다면, 그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로 돌아갔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정책의 책임이다. /gh47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0일 (음 9월 10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마음을 크게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0년생** 가벼운 운동이 길합니다. **72년생** 천천히 자신의 길을 가세요. **84년생** 귀하의 운이 너무나도 길합니다.

49년생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61년생**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73년생** 옛 동창들과 어울려 얘기하는 것이 길합니다. **85년생** 이성과의 이별수가 예상됩니다.

50년생 강한 고집은 흉합니다. **62년생**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4년생** 이성운은 좋지만 뜻밖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86년생**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51년생 불안정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63년생** 업무에 잔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75년생** 사전 연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87년생** 쉽게 지치지 말고 진득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52년생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길하지 못합니다. **64년생** 길한운이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76년생** 유쾌한 하루를 망칠수도 있습니다. **88년생**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53년생 지식을 널리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65년생** 꽃보다는 열매라는 식으로 실속을 취하세요. **77년생**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세. **89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도 다음을 기약하세요.

54년생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충분한 안정을 취하세요. **66년생** 금전, 이성문제, 모두 유리할 것입니다. **78년생**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90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5년생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67년생**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79년생** 환경을 극복하는데 가장 쉬운 길을 택하세요. **91년생** 윗사람의 조언을 받아 보세요.

56년생 꾸준한 독서를 통해 배울 점이 많습니다. **68년생**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어진 사람과 대화하세요. **80년생**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길합니다. **92년생** 주관을 확실하게 밝혀보세요.

57년생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69년생**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세요. **81년생** 인생에 쉬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93년생**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58년생 말을 조심하세요. **70년생** 복잡하게 얽힌 일이 차차 해결될 것입니다. **82년생** 조급해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세요. **94년생** 순간적인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59년생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71년생** 안정을 취하며 조금 여유를 갖는 게 좋을 듯 합니다. **83년생** 외출하면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95년생** 언제나 말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김상회의 四季

독수리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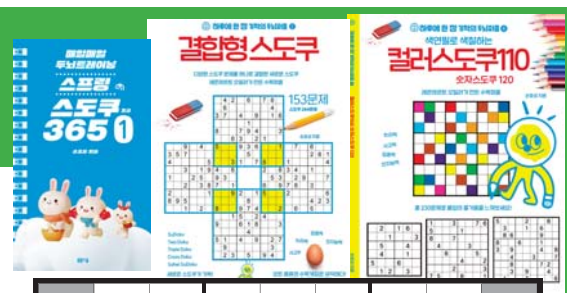
암독수리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 수컷 독수리의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는 쇼츠를 보았다. 알을 품고 있느라 자리를 뜨지 못한 암컷 대신 먹이를 구하러 이틀 동안 떠나있다가 먹이를 구해와서는 아내가 먹을 수 있도록 대신 조심스레 알을 챙기며 대신 품고 있었고, 다시 아내 독수리가 알을 품자 풀을 입으로 물어와서는 춥지 않도록 이불처럼 덮어 주는 모습이었다. 미국 빅베어호수의 사랑꾼 독수리 부부에게 주민들이 '재키와 쉐도우'라는 이름까지 붙여 준 것을 보면 이미 지역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각인된 사랑꾼 동물 명사일 것이다. "험난한 야생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짝궁"이라는 설명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습에 동물 세계도 인간들 세계와 다름없는 부부간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쩌면 인간들의 사랑보다 더 진솔하지 않을까 하는 애틋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독수리는 누가 뭐래도 하늘의 최강자로 알려진 맹금류이다. 그렇기에 암컷을 살듯하게 챙기는 남편 독수리의 모습이 사납고 용맹스러운 이미지와는 많이도 다른 듯하여 더욱 남다르게 다가온 것 같다. 독수리는 서양의 여러 국가나 단체에서 강한 국가를 대변하는 상징물로 쓰이기도 하는데, 옛날 유럽의 로마 제국이나 후대의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검독수리를 왕조나 권좌의 상징물로 휘장이나 문장에 자주 사용하였다. 흰머리수리의 경우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강국인 미국의 국조이기도 하다. 특히 흰머리수리가 미국의 상징 조류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흰머리수리는 북아메리카에만 서식하는 토종 조류인 데다가 멀리서도 구분되는 선명한 흰색과 꼬리가 외양적 특징이다. 미국인들의 정신적 핵심 가치인 애국심과 다민족, 다인종으로서의 국가적 단합을 이룸에 있어 강력함과 질서, 신뢰를 주는 데 있어 북미대륙의 토종 새인 흰머리수리는 맞춤 상징이었을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한 칸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7	4	3
8				4				
	7						8	5
							5	
			6		7			
	6							
3	8						1	
				8				4
5	4	2			6			

	2	6		9	7			1
	9			1	3			
								4
	7		3					
					2		5	
1								
			6	3			7	
3			2	4		5	1	

8	9	3	6	7	1	2	4	5
4	7	2	3	8	5	6	9	1
6	1	5	2	9	4	7	8	3
7	2	4	1	5	8	3	6	9
9	3	8	7	2	6	5	1	4
1	5	6	9	3	4	8	2	7
2	7	4	8	6	9	1	5	3
3	8	7	4	1	2	9	3	6
5	4	9	5	1	3	6	7	8

6	5	9	2	1	8	7	4	3
8	3	1	7	4	5	9	6	2
2	7	4	9	6	3	5	8	1
9	6	5	4	3	1	8	2	7
4	1	3	5	8	7	2	9	6
3	8	7	6	9	2	4	1	5
1	9	2	8	5	4	3	7	6
7	4	6	1	2	9	8	5	3
5	2	8	3	7	6	1	9	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16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2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래미안 소넬리 조감도. /삼성물산

삼성물산,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수주

새 단지명 '래미안 소넬리' 제안

삼성물산이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을 수주하고, 주거동을 줄여 한강 조망 가구를 늘리는 설계안을 제시했다. 네덜란드 건축설계사 OMA와 협업하고, 가족 구성 변화에 따라 내부 공간을 바꿀 수 있는 '넥스트홈' 기술도 적용할 계획이다.

19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16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59층, 총 248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공사비는 약 2조2685억원이다.

삼성물산은 새 단지명으로 '래미안 소넬리(RAEMIAN SonelY)'를 제안했다. 기준을 뜻하는 '스탠다드(Standard)'와 유일무이함을 의미하는 '원 앤 온리(One & Only)'를 조합한 이름이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본부장은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대한민국 아파트 주거문화의 시작을 알린 상징적인 단지"라며 "삼성물산이 보유한 역량을 총결집해 미래 주거의 새로운 기준이자 여의도를 대표하는 주거 명작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 입주 아파트 '뚝'… 내달 500가구 미만

전국 입주물량도 전년대비 절반 수준

다음 달 서울에서 입주하는 아파트가 488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전국의 11월 입주물량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19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2026년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1개 단지, 1만1559가구다. 전월 1만6567가구보다 30%, 지난해 같은 달 2만2551가구보다 49% 감소한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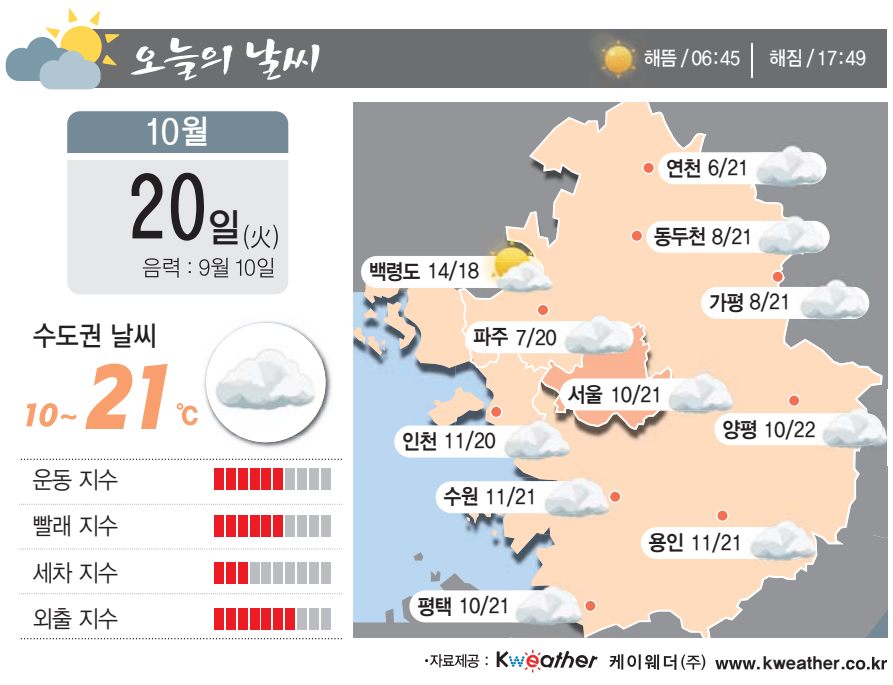
권역별로는 수도권 4031가구, 지방 7528가구다. 전월 대비 수도권은 49%, 지방은 13% 줄어든다. 지방 물량은 전국의 65%로, 수도권의 약 1.9배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개봉동 개봉루브루 295가구,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센트럴아르떼해모로 123가구, 양천구 신월동 한양LEEPS 70가구가 입주한다. 모두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300가구 미만 단지다. 인천은 11월 예정된 입주물량이 없다.

경기는 6개 단지, 3543가구로 전월 2788가구보다 27%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평택 1604가구, 이천 1532가구, 용인 348가구, 부천 59가구다.

지방에서는 12개 단지, 7528가구가 입주한다. 전북 2430가구, 울산 2153가구, 부산 1067가구, 경북 763가구, 대전 660가구, 강원 228가구, 충남 182가구, 제주 45가구 순이다. 전북과 울산이 지방 물량의 61%를 차지한다.

올해 4분기 전국 입주물량은 총 4만4300여 가구로 예상된다. 3분기 3만5700여 가구보다 24% 많지만, 지난해 4분기 7만2400여 가구보다는 39% 적다. /이현진 기자



서울 원룸 세입자 주거비 부담 가중 장기수선충당금 등 제도보완 시급

전년대비 평균 월세·관리비 상승
장기수선충당금 집행·반환 '사각'
"세입자 권리 인지·행사 도와야"

월세에 관리비까지 오르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관리비에 함께 청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뒤 반환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시설 보수에 쓰려고 모은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잇따라 적발되면서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이 과제로 떠올랐다.

1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올해 7월 다방에 등록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전용면적 33㎡ 이하 기준 62만5000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4000원 올랐다. 평균 관리비도 7만50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합하면 매달 평균 70만9000원이 필요한 셈이다.

관리비는 집을 구할 때 월세보다 눈에 덜 띄지만, 세입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라는 점은 같다. 월세가 비슷해도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과 별도로 내야 하는 공과금에 따라 비용은 달라진다. 건물 관리 비용과 전기·수도 사용료는 물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등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보수·교체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다.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한다.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소유자의 반환 의무와 함께 세입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반환 규정이 있어도 정산 과정에서 안내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달 약 3년간 살던 집에서 이사한 세입자 A씨는 장기수선충당금 26만8460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반환 안내는 먼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언급하니까 그제야 줬다"며 "따로 말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를 알지 못한 채 퇴거하거나,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해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항목으로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둘의 성격은 다르다. 수선유지비는 일상적인 시설 유지·보수에 드는 관리비다. 장기수선충당금 처럼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는 이유로 반환받는 항목은 아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해야 할 공사비를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면 소유자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용도와 집행 절차는 정해져 있지만 관리·집행 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실태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은 총 3299건이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79건에서 지난해 786건으로 늘었다. 일반 관리비나 경비 등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사례는 833건으로 전체의 25.3%를 차지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쓰거나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향후 시설 보수·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환·정산 문제와 별개로 적립금의 부실 집행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전체의 주거환경과 연결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관리비에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돌려받을 비용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매달 납부액을 공개하는 데서 나아가 인상 이유와 사용 근거,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절차까지 쉽게 설명해야 불필요한 부담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관리비 관련 규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들을 명시하도록 한다면 세입자가 권리를 쉽게 인지하고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오세훈 "정비사업, 줄기 올라오는 단계"

〈서울시장〉

2026 국정감사

박 前 시장 시기 정비사업 붕괴 성토
"실제 주택공급까지 시간 필요한 상황"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기 정비사업 정책을 두고 "뿌리를 뽑아놓고 제초제까지 뿌려놓고 가셨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추진했던 정비사업이 박 전 시장 시기에 중단됐으며, 취임 이후 공급 기반을 다시 마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을 밭을 일구는 일에 빗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씨앗을 뿌려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원순 시장님께 넘어갔는데, 그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서 올라오는 걸 전부 뿌리를 뽑아놓고 제초제까지 뿌려놓고 가셨다"고 말했다. 2006~2011년 첫 재임 당시 추진했던 정비사업이 박 전 시장 재임 시기에 중단되거나 해제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제가 다시 들어와서 또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202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복귀한 뒤 정비사업을 다시 활성화하고 있지만,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비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지원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려면 정부가 비료도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주셔야 된다"며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확대만으로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정비사업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과 이주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대부분 20억 내지 30억원 아니겠느냐"며 "누군가에게는 자산 축적의 기회가 되겠지만 청년들이나 월세 사는 분들에게는 공급 대책으로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사업이 부동산 시장 과열이나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 많다"며 "속도전이 아니라 속도 조절을 조금 더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lhj@

메트로 한줄뉴스



▲ 트럼프, 네타냐후 공개 지지했지만… 이스라엘 총선 판세 바뀔까 /사진 뉴시스

▲ 中 선박 16척, 대만 주변 해역서 동시다발 도발 … 대만 "강력 퇴거"

▲ 中 딥시크, 새 AI 모델 공개… "성능 개선, 비용 낮춰"

▲ 日다카이치 지지율 50%대 유지… 농림상 경질 파장 제한적

▲ 美 '반트럼프' 시위 중 인스타 90분간 정지… 메타 "자동화 오류"

▲ 트럼프 '에너지 휴전' 선언 일주일… 젤렌스키 "러, 에너지시설 76차례 공격"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16호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식품업계
비용 낮추고
수요 잡는다
L1

암세포만
정밀타격
면역항암 승부수
L2



기술 전수하고, 장애인 자립 돕고… 제빵으로 희망을 굽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상미당홀딩스

창업 초기부터 '상미당 정신' 바탕으로 제과·제빵 산업 활용 사회공헌 활동 펼쳐

매장서 근무하는 청년들에 장학금 전달 제과제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재양성 발달장애인에 제빵기술 전수, 자립 도와

전국 푸드뱅크에 먹거리·배송용 차 지원 임직원 기부 펀드 조성… 장애아동 치료 장애인 재활시설 카페 운영 후원, 자문도 글로벌 브랜드 성장 속 뜻깊은 상생 이어가

상미당홀딩스는 창업 초기부터 이어온 '상미당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오고 있다. 1998년 푸드뱅크 사업 참여를 계기로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화했으며, 2011년 사회복지법인 '행복한 재단'을 설립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행복한재단은 제과·제빵 산업에서 축적한 기술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 지원, 제빵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상미당홀딩스가 장애인 바리스타 커피 기술 교육을 지원한다.



상미당홀딩스 임직원들이 연탄과 호빵을 배달하고 있다. /상미당홀딩스

상미당홀딩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상미당 행복한 장학금'이다. "매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허영인 회장의 뜻에 따라 2012년 시작된 장학 사업으로, 매장에서 근무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3077여 명에게 총 54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청년들의 학업과 미래 준비를 돕고 있다.

상미당홀딩스는 장학 사업과 함께 제과·제빵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베이킹 체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내 꿈은 파티시에'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운영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실습과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까지 총 276팀, 845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했으며, 제과제빵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 37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누적 약 11억 7000만 원 규모의 후원이 이뤄지며 제과제빵의 꿈을 키우는 아동·청소년들의 대표적인 경연 대회로 자리잡았다.

이와 더불어 2012년부터 파리크라상 기술교육팀 전문 강사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행복한 베이커리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기술을 전수하는 활동으로 현재까지 3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장애인 제빵 교육장 조성, 직업훈련비 지원, 해외연수 지원 등 총 9억 원 규모의 후원을 진행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푸드뱅크에 먹거리를 지원하고 식품 배송용 냉동탑차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푸드뱅크 누적 기부액은 약 3270억 원에 달하며, 연평균 169억 원 수준으로 국내 식품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러한 나눔 활동은 창업주 故 허창성 명예회장에서 허영인 회장으로 이어진 경영 철학 아래, 전국 사업장과 약 6600여 개 가맹점이 함께 참여하며 확대되어 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허영인 회장은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했으며 회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2022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신차를 지원해왔으며, 2023년 6대와 2024년 2대, 2025년 2대 등 현재까지 총 10대를 전달했다. 향후 5년간 10대를 추가 지원해 총 20대의 배송 차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미당 행복한펀드'는 상미당홀딩스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추가로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행복한펀드로 조성된 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쓰인다. 푸르메재단을 통해 장애 어린이의 재활 치료와 보조기구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판소리·미술·탁구 등 다양한 예체능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아동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특기·적성 교육과 제주 가족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2년 시작된 '행복한펀드'는 현재까지 누적 28억 4000만 원이 기부됐으며, 약 1800명의 장애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도움을 받았다.

상미당홀딩스의 사회공헌인 '행복한베이커리&카페'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카페 오픈과 운영에 누적 30억 원을 후원해온 한편, 기술교육, 매장점검, 자문 등의 현장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상미당홀딩스 관계자는 "빵을 나누는 것을 넘어 제과·제빵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학 사업과 직업 교육,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미당홀딩스는 파리바게뜨를 중심으로 북미, 중국, 동남아,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며 'K-베이커리'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2004년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브루나이, 몽골 등 총 15개국에서 약 750여 개의 해외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상미당홀딩스는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과 현지 맞춤형 전략,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스템과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女단식 최다승 신기록' 배드민턴 안세영 "더 많은 역사 만들고 기록 깨고파" /사진 뉴시스

▲'올림픽 銀 2개' 사격 김종현, 27년 정든 사선 떠나 지도자로

▲'캐릭 감독 경질설' 맨유, 또 못 이겼다…6경기 연속 무승 늪

▲'의사 복서' 서려경, 세 번째 도전 끝에 세계 챔피언 등극

▲'캄보디아 도피 논란' 이임생, 청문회 이어 국감도 불출석

▲뜨거운 K리그1 득점왕 경쟁…야고·클리말라·무고사 3파전

삶 속으로 AI가 성큼

디지털에 머물던 AI를, 삶 속에서 움직이는 AI로.
LG가 사람을 위한 피지컬 AI 시대를 열어갑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 지능

감정을 전하는 표정 디스플레이

보고 느끼는 감각 센서

피지컬 AI의 심장 배터리

자유로운 동작을 구현하는 엑추에이터

섬세함을 구현하는 손 센서

미래, 같이

AI로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LG